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CEO STORY

항영도 (주)한영엔지니어링 회장

고객 만족 향한 집념이 일군 내산 분야 기술력의 자부심

FRP 탱크

고성능 플라스틱 소재인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한
FRP 탱크는 내산성이 강해
부식을 일으키기 쉬운 용액을
이송하고 저장하는 데
사용한다.

CEO ACADEMY

변화하는 세계 경제,
움직이는 교역 트렌드
P.02

ESG FOCUS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P.22

IBK EXPLORING

IBK가 만난
이달의 기업들
P.38



CONTENTS

2023. April. Vol_217



발행일 2023년 4월 3일(통권 제217호)
등록번호 서울종라 00429
발행인 김성태
편집인 조봉현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7)
Tel 02-729-6520
Fax 0505-077-0850
기획 IBK경제연구소
편집디자인제작 한국경제매거진㈜
인쇄소 ㈜타라TPS
문의 031-945-1080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찾아가는 이메일 서비스
구독 신청



<중소기업 CEO 리포트>
지나호 보기



재세계화

02_ FIGURE

변화하는 세계 경제,
움직이는 교역트렌드

04_ HISTORY

분절화된 세계 속
새로운 세계화의 방향

08_ CASE

위기관리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전략적 다원화

12_ PLAN

재세계화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도전

01_ 시론

기업인천하지대본 企業人天下之大本

16_ CEO STORY

황영도 (주)한영엔지니어링 회장
고객만족 향한 집념이 일군
내산분야기술력의 자부심

22_ ESG FOCUS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에너지기업들

26_ GLOBAL MARKET

러·우 전쟁으로 위기를 맞은 국가들

30_ MARKET FINDER

세계는 지금 녹색 전환 중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32_ CEO'S GURU

ESG를 넘어 CSV로
네슬레 올프마크 슈나이더

34_ IBK & START-UPS

도구공간 김진호 대표
더감 김진욱 대표
임팩티브시 정두희 대표
모쓰 이재형 대표

38_ IBK EXPLORING

IBK가 만난 이달의 기업들

40_ WITH IBK

IVI 분야의 애플을 꿈꾸다
임진우 (주)드림에이스 대표

42_ ECONOMIC REVIEW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44_ POLICAST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생형 정책보힘으로

46_ COMPANY & LAW TAX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48_ COMPANY & LAW LABOR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인정하는
'갱신기대권'

50_ CEO FAVORITES

CEO의 즐겨찾기

52_ IBK SUPPORT

노무 컨설팅을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IBK경제연구소 소장
부행장 조봉현

시론

서울 을지로의 IBK기업은행 본점 입구에는
'기업인천하지대본 企業人天下之大本'이라는 문구가 화강암에 새겨져 있다. 기업이
국가 경제의 원천이고 국가의 부를 생성하는 기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뜻이다.

'경기가 둔화되는 우리 경제를 하루 빨리 회복시키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어
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때마다 '기업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서도 기업이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

한때는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소비 증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을 이루는 '소득
주도 성장'이 강조되었지만,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수

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내수시장 비율

(2019~2021년 평균)은 46.4%

로 미국(69.8%), 일본(53.4%)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기업 주도 성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길이다. 기업 주
도 성장은 기업 성과 창출 → 일자리 증가 → 소득 증대 → 경제 도약으로 이
어지는 선순환 구조다. 기업이 마음껏 경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경제가 성
장하고 고용도 창출된다.

경제의 3대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의 부가가치 비중(2021년)을 보면, 가계
31.1%, 정부 22%에 비해 기업은 46.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가가치
를 창출한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투자 및 연구·개
발-R&D로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게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을 위해 성장 사
다리를 놓으며, 기업인에게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창의와 혁신, 도전정신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때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도 창출된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다. 물론 기업 주도 성
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양극화, 소외계층, 취약계층 문
제 해결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업이 잘되어야 나라가 살고 발전한다. 2023년은 기업 주도 성장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변화하는 세계 경제, 움직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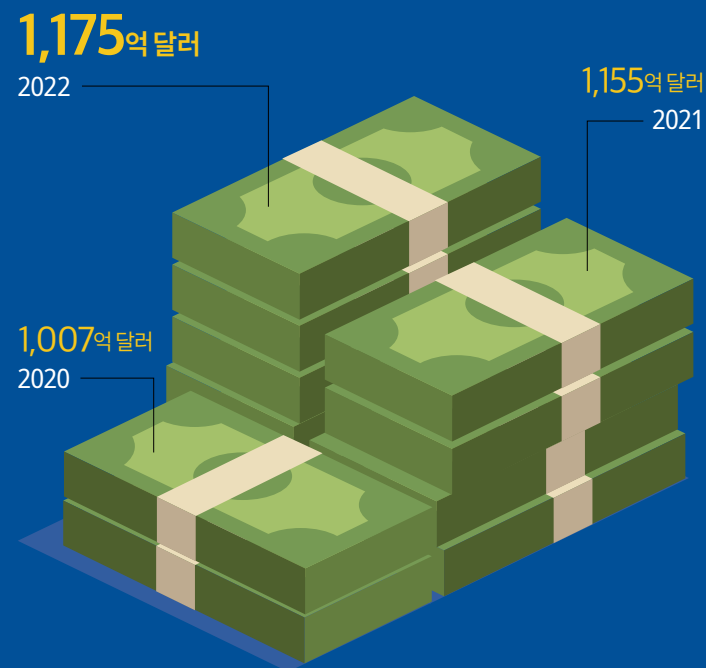
교역 트렌드

세계는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 수출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교역 동향에서도 드러나는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본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수출액 추이

2022년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175억 달러로, 글로벌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등 어려운 대외 상황 속에서도 2년 연속 1,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 중 10위를 차지한 '기타 기계류'는 중국의 봉쇄정책으로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재편하면서 그 영향에 따라 베트남으로의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출이 증가해 2022년에 새롭게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으로 진입했다. 반면, 중소기업 1위 수출 품목인 플라스틱 제품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 등의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의 부상으로 인한 플라스틱 용기 사용 감소로 연간 수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플라스틱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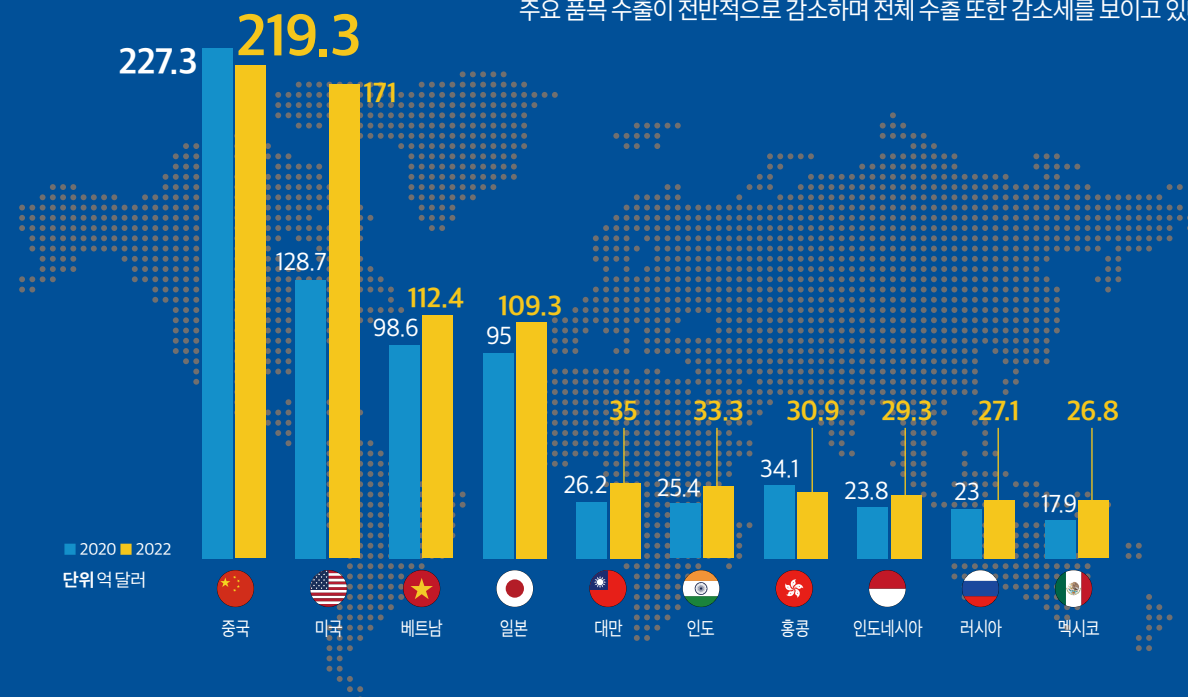
1위 51.2억 달러

2위 화장품	45.5
3위 자동차부품	44.1
4위 합성수지	39.7
5위 반도체 제조용 장비	39.3
6위 반도체	31.3
7위 자동차	31.2
8위 의약품	29.2
9위 철강판	28.9
10위 기타 기계류	28.6

단위 억 달러 주 2022년 기준

중소기업 수출액 10대 국가

미국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정책의 영향으로 미국과 멕시코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다만, 일본 등 주요국 수출 역시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중국, 홍콩은 강력한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주요 품목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전체 수출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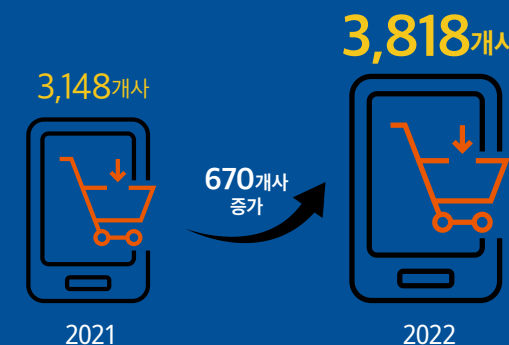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동향

2022년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7.1억 달러로, 온라인 총 수출액 9.1억 달러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78.4%를 차지하며 온라인 수출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강세를 보였다. 또한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수는 3,818개로 전년 3,148개사 대비 670개사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추이



분절화된 세계 속 새로운 세계화의 방향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대미문의 변화에 직면해 있는 현재,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새로운 공급망 구축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과거 세계 경제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세계화의 역사와,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한 세계화의 붕괴 그리고 탈세계화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재세계화의 흐름을 살펴본다.



2023 프랑스·스페인 정상회담 자국 산업 발전을 최우선으로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와 스페인 정상이 우호 조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공급망 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 경제는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도구로 삼아, 러시아에 대항하려 서방이 일으킨 전쟁이다.” 지난 3월 초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라이시나대화^{Raisina Dialogue}에서 세르게이 라블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한 말이다. 청중은 즉각 조롱과 야유로 답했지만,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가 주장하는 대안적

논리가 진실임을 설득하려고 했다. 물론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하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상반된 주장과 논리가 각종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 러시아와 인도, 중국, 중동, 유럽, 미국에서 개최되는 다수의 국제포럼에 참석해 온 필자는 조금의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놓

고 지금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그리고 2023년 지금, 이런 세계관의 충돌로 분절화된 세계는 팔을 걷어붙이고 민낯을 드러내며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아니, 이미 싸움은 시작되었고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유럽에서 전쟁이 났다.

1990년대, 통합으로 순항하는 세계 경제

국가 간 긴장의 상승과 충돌은 기실 국내적 요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1990년 전후 공산권의 몰락으로 세계 경제는 명실상부하게 통합되었다.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등 몰락한 구 공산권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같이 체제를 유지한 공산권 국가들도 세계 경제에 급속히 편입되었다. 이러한 지각변동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까지 세계 경제는 순조롭게 성장했으며, 연평균 세계 무역 성장률은 1995~2008년 사이 약 9%에 이르렀다. 세계화는 대세였고, 글로벌가치사슬^{GVC}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하지만 세계화로 인해 불평등이 계속 확대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정말 그럴까?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으로 지난 30년 동안 국가 간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완만하게 그러나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전 세계 빈곤층은 1995년 32.8%에서 2019년 8.4%로 크게 감소했다. 어느 나라를 가봐도 수도권 경제 중심지의 도심 풍경은 크

게 다르지 않고, 개도국의 극빈층과 절대적 빈곤층은 크게 감소했다. 그럼에도 국가 간 통상 분쟁, 안보 갈등, 보호주의 그리고 각자도생의 양상이 심화하고 있고, 불평등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왜 그런 것일까?

문제는 국가 간 불평등이 아니라 국내 불평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전면적 대외 개방, 즉 세계화에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주장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다.

세계화가 불러 온 세계 질서의 변화

국내 불평등도는 거의 대다수의 선진국과 중국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개도국에서 크게 확대되어 왔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미국과 영국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1990년대에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커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개도국으로 퍼져 나갔다. 이는 세계화의 흐름과 얼추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세계화가 불평등 확대의 주범일까?

불평등 확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술 발전이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미숙련 노동 또는 반숙련 노동의 일자리에 큰 위협이 되었다. 1980년대 초반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일간지 더 타임즈에서는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인 식자공노조의 파업으로 신문이 발간되지 못한 적이 있었다. 컴퓨터가 보편화되고 컴퓨터에 탑재된 워드프로세서가 개발되면서 불과 10년 사이에 식자



김홍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한국APEC학회 회장,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다.

*글로벌가치사슬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여러 나라를 거쳐 다양한 생산 단계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소비되는 활동의 총체.

공이라는 직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타자수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인공지능^{AI}이 더 보편화되면 중급 기술뿐만 아니라 일부 고급 기술 노동도 위협해진다.

기술 발전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감세 정책 등 정부 정책도 불평등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불평등 확대에는 정부 정책의 변화에 힘입은 바 크다.

그렇지만 대외 개방도 특히 선진국의 미숙련 노동자에게는 큰 위협이 된다. 예컨대 중국에서 종이컵을 만들어 수출하면 선진국의 종이컵 공장은 한순간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즉, 종이컵에는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내재되어 있다. 개방의 확대가 일부 특정 계층에게 비대칭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화의 확산이 불평등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이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다. 대외 개

방이 총체적인 부를 증가시키고 극빈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산층은 타격받았다. 이 계층이 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사이에 세계화의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최상위 계층은 엄청나게 부를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1980년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50%의 8.6배에 불과했으나, 2020년 이 비율은 15.1배로 크게 증가했다. 국가 주도의 소득 재분배 개념이 거의 없었던 1920년의 14.4배를 이미 넘어섰다.

세계화에 대한 오해

불평등의 확대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럽에서의 2000년대 후반 이후 극우 및 극좌 정당의 부상 그리고 미국의 티파티^{Tea Party}와 트럼프즘의 부상은 중산층의 붕괴 및 불평등의 확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평등 확대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다. 기술 발전으로 불평등이 확대되었다는 주장은 '그래서 어쩌란 말이나?'라는 반응밖에 나올 것이 없다. 기술 발전을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라는 주장은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되었기에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반면, 개방과 세계화가 불평등 확대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매우 휘발성이 강하고 호소력이 크다. 대다수의 극우 정당들이 세계화 반대, 이민 반대를 외치는 것은, "바로 당신이 가난한 것은 세계화

때문이다"라고 알기 쉽게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간 반면, 기존 레거시 정당들은 방어적으로 또는 무관심으로 대응하면서 지지 세력을 잃었다. 이제 다자간, 지역 간, 양자 간 국가 협의체는 극단적 논리로 무장된 정치권력의 싸움 장으로 변모했다. 국제 무역 질서를 만들어내고 규율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세계 질서 회복을 위한 재세계화

불신의 시대, 국제무역을 다시 복원하고 다자 질서를 회복하자는 글로벌 컨센서스를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개방의 영향에 관한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무역 확대는 국가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연결성을 확대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기후변화, 전염병과 같은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슈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을 제공하고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개방이 빈곤 증가, 고용과 임금 안정성,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환경, 공급망, 안보 등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규명해 제시해야 한다.

한편,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디지털, 환경 상품·서비스의 무역 비용을 낮추어 새로운 GVC를 형성하고 무역, 투자, 소득이 함께 증가하는 선순환이 달성되도록 노력

해야 한다. 이렇게 전통적 상품 무역을 넘어서는 분야의 확장을 의미하는 재세계화^{Re-globalization}는 탈세계화 시대의 대안으로 기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및 그린 전환 중심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역과 투자에서 디지털 연결성을 강화하고 개발 원조에서 디지털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를 완화, 경제·사회적 문제를 개선해 포용과 지속 가능한 무역을 확대해야 한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무역과 투자 확대가 그린 전환을 통해 저탄소 경제 실현에 기여하고, 개선된 기후와 환경이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도 긴밀하게 연결되며, 기후환경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불평등 문제는 통상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기후변화나 국가안보와 같은 비무역 가치에 근거한 일방 조치를 다자적으로 공론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의 성공 사례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던질 수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서사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 발전 가능성과 포용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민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수출 확대와 함께 무역 자유화에 따른 국내 보완 대책 정비를 병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에서 무역 개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by}



세계화의 흐름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등장

1990년 전후

공산권의 몰락으로
세계 경제 통합

2000년대

GVC의
급속한 확대

2020년~

코로나19,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탈세계화



G7 정상회의장
주변 시위대

2021년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 콘월에서
시위대가 코로나19 대응 요구,
세계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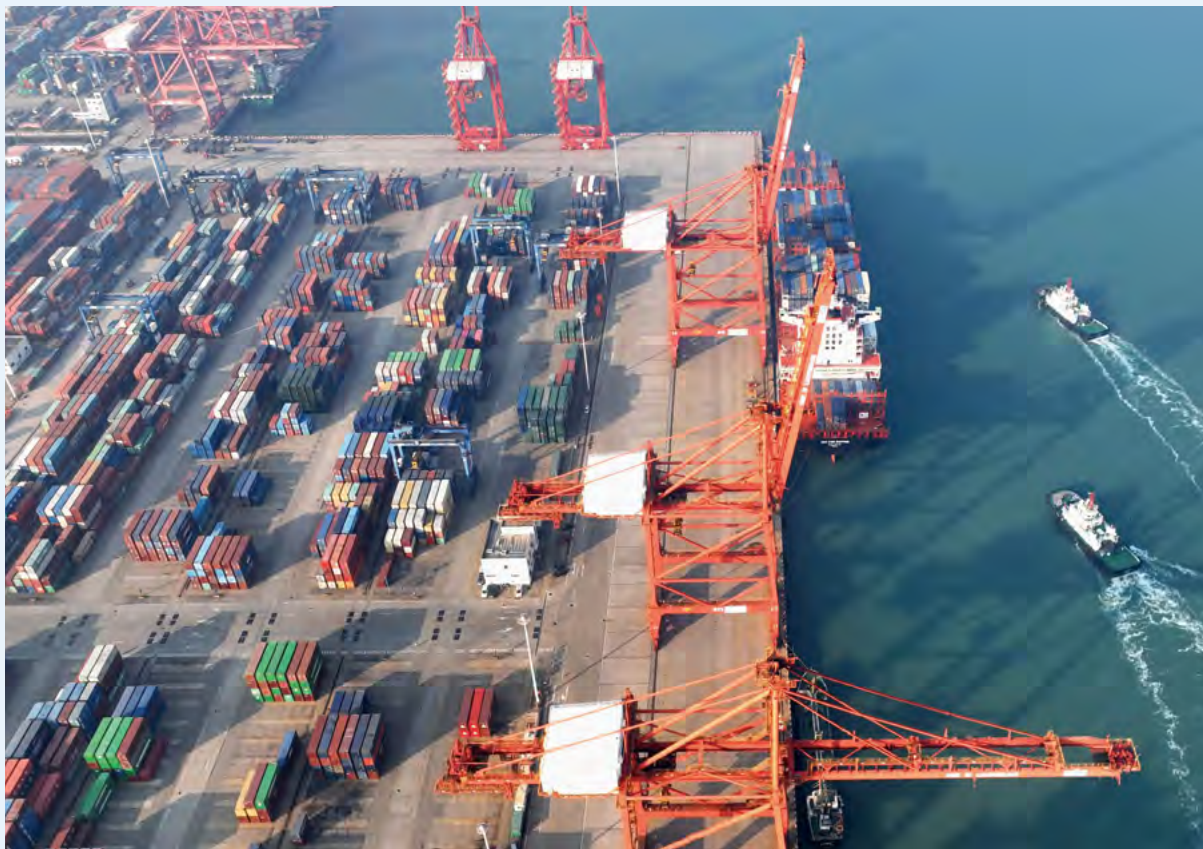
위기관리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전략적 다원화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분업화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와 미국·중국 무역전쟁,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며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 역시 공급망 위기관리 노력이 필요한 때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 재편되는 공급망

‘경제안보 [Economic Safety](#)’는 외부의 불안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경제가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최근 들어 각국은 경제안보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통상 현안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안보 역량을 과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미·중 무역분쟁처럼 대결 또는 경쟁을 통해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협력외교를 통해서 자유무역협정 [FTA](#)이나 투자 협정을 체결해 위험 요인을 낮추는 것이다.



세계 전자 산업 공급망의 중심인 중국 장쑤성 쉰원강 항구 중국은 세계 경제에 있어서 무역과 투자를 주도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역 봉쇄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 이탈이라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 전쟁은 결국 규제나 장벽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 환경을 조성한다는 면에서 그동안 경제협력외교를 중심으로 한 통상 질서가 유지되어 왔으며, 각국 간 경제협력을 위한 다자간 FTA가 체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략물자 [Strategic Items](#)에 대한 수출 제한 등으로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은 일시적인 충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제협력외교보다는 강대강의 대결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을 배제시키고(이른바 거미전략 [去美戰略](#)) 기술 자립을 통해 혁신강국을 이루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돌발적인 대응 조치로 공급망 단절 [Supply Chain Disruption](#)을 경험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핵심 산업 분야의 공급망 [Critical Supply Chain](#)을 동맹국 간에

구축하자고 하는 ‘칩4 동맹 [Chip 4 Alliance](#)’을 제안했다. 미국의 기술력이 담긴 부품이나 소재도 전략물자 제한목록 [Critical Technology List](#)에 포함해 수출 시 승인을 받게 함과 동시에 중국 제조 공정이 포함된 물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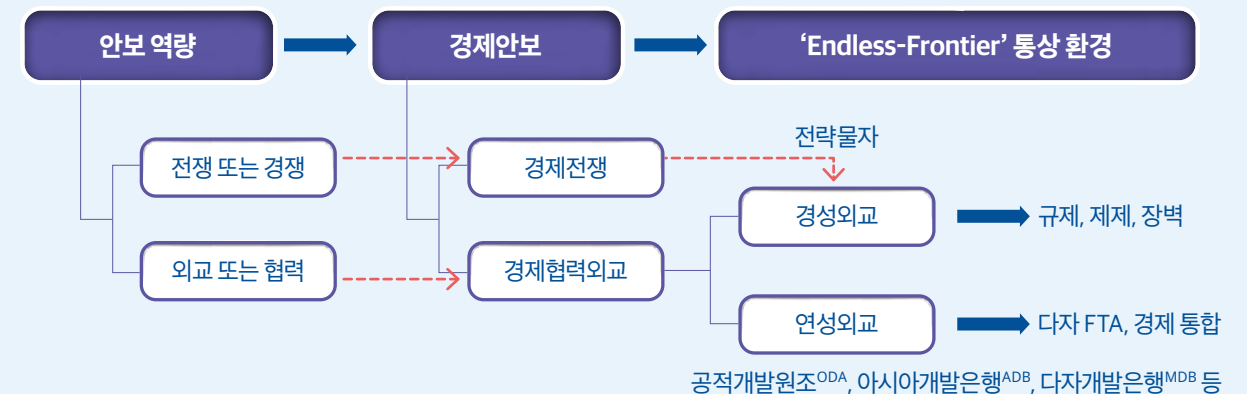
글로벌 공급망 전환의 시대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분업화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와 미·중 무역전쟁 여기에 러·우 전쟁이 겹쳐서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었다.

현재와 유사한 상황을 과거 자동차 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도요타의 JIT [Just in Time](#) 방식으로 불리는 ‘린 [Lean](#) 생산 방식’이 보편적 진리로 받아들여졌던 적이 있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산업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코트라와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국제조세 상담역을 역임하고, 현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경영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생태계 전반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결국 재고 최소화를 통한 원가 절감에서 위기관리 체계를 도입한 생산 거점 분산과 공급망 다양화로 생산 방식이 변경되었다.

‘세계의 공장’ 떠나는 기업들

중국 은 그동안 ‘세계의 공장’^{Factory of the World}으로 불리며 세계 경제에 있어서 무역과 투자를 주도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중

핵으로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역 봉쇄조치들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믿음을 재검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중국 이탈^{China Exit}이라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진행된 현대자동차의 베이징 1공장 매각이나 기아의 엔청 1공장 폐쇄, 삼성디스플레이의 액정표시장치^{LCD} 생산 공장 매각과 삼성SDI의 배터리 팩 공장 2곳 폐쇄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이탈하는 제조 기지들의 형태는 본국으로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인접 국가에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간에 협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Freindshoring}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 봉쇄로 인한 공급망 단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그동안 효율성 중심

의 공급망 운영에다 위기관리 체계를 도입해 단일화된 글로벌 공급망을 지역 거점 중심의 분산된 공급망으로 바꾸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물리적인 거리 이동을 최소화해 근거리 조달^{Proximity Sourcing}이 가능한 디지털 공급망이 공급망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공급망 재편 사례

세계 전자 산업 공급망의 중심인 장쑤성 쿤산시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봉쇄되면서 폭스콘은 제2의 생산 기지로 인도를 선정했으며 애플은 인도에서 아이폰 14 조립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15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현재 크레타, 아이오닉을 양산 중이다. 이러한 공급망 재편 사례는 다국적 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 협력사인 한솔전자는 베트남 법인에 1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으며, 심텍홀딩스는 말레이시아에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PCB}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1억2,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탈중국에 따른 아세안 지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 중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전략적 다원화

이러한 공급망 재편 사례를 보면, 글로벌 공급망은 향후 지역 공급망으로 재구축될 전망이며, 공급망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 원칙뿐 아니라, 위기관리와 돌발사태

발생에 따른 복원력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정 소수 기업에 집중된 소재·부품 공급원을 공급망 위기 관리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돌발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Early Warning System·EWS}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고, 공급망에서 취약한 경로 관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공급망 위기 관리 노력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시각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글로벌 공급망 관리



재세계화 시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도전

최근 세계 경제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세계화 모델이 한계에 부딪히며 글로벌 산업 트렌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며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화물기에 수출 화물을 싣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풍경 한국 무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쉼터점을 도모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

글로벌 산업 트렌드의 전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초⁴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공급망 재편 등 보호 무역주의와 경제안보 움직임 강화, 탄소중립·디지털 확산에 따른 산업 트렌드의 급변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글로벌 경제 전반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트렌드 변화로 △그린 △디지털 △공급망 3가지가 꼽힌다.

첫째, 탄소중립·자원순환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느 국가가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Sustainable Competitiveness**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우리는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이를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업 육성과 성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소경제의 경우 수소 활용 산업 활성화로 수소 수요가 예상치를 달성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을 매년 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고, 연간 2조5,000억 달러의 수소 및 관련 장비 시장과 3,000만 개의 누적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이다. 또한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상당량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데이터·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핵심 기술을 밸류체인 전반에 접목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화함으로써 혁신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경제 확산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의 총체적 변화를 의미하는 '디지털 전환'은 AI, 클라우드 등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발현하면서 산업 부문의 메가 트렌드로 부상했고, 이는 판매, 마케팅, 생산 방식을 디지털화해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을 촉발시키는 중이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으로 유연 생산(다품종 변량 생산)과 효율 생산 추구가 가능해졌다. 스마트팩토리는 디지털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공장의 생산설비(시스템)를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고객의 요구사항부터 제품 개발에 이르는 가치사슬 **Value Chain**을 수평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지능형 자율 공장을 구축하면 공정 생산성 향상 및 협동로봇의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DX} 관련 기술은 △빅데이터 기술 접목을 통한 소비자 접근성 및 유통 효율성 향상 도모 △클라우드 기반의 판매 채널 디지털화를 통한 운영 효율화 및 신규 고객 가치 창출 △AI 시스템을 활용한 소비자 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약화 등 효율보다 안정을 중시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뉴노멀'을 맞이해 한발 앞선 글로벌 생산 전략의 수정이 요구된다.

글로벌 공급망은 세계 각국에 있는 기업들이 분업해 제품을 기획하고 원자재 및 부품을 조달·가공·생산해 최종 고객에게 전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팬데믹, 미국·중국의 대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위기를 경험한 세계는 효율성보다 안정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 중이다.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GVC는 정체되는 반면,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강화 기조에 따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 간 경제 블록화 및 가치사슬의 지역화가 심화되고 있다. 많은 제조 기업이 중국 등 기존 제조 기지에서 본국 혹은 소비지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무역 및 통상정책과 연계한 비용절감형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유럽은 재산업화 전략*에 따른 리쇼어링 정책을, 일본은 귀환 기업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제너럴 일렉트릭^{GE}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해 중국 등 전통적 생산 거점에 있던 공장을 본국으로 이전시키면서 공급망의 디지털화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한국 무역을 이끌 성장동력 산업 육성

이 같은 트렌드 변화를 감안할 때 미래 한국 무역을 이끌 7대 유망 성장 동력 산업으로 △차세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헬스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 △우주 △콘텐츠 등이 꼽힌다. 이런 신산



강내영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경영공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주요
연구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기술 혁신과 리쇼어링>
등이 있다.

*스마트그리드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ICT}을 접목해 전력망을 실시간으로 관찰·통제하고, 양방향 통신을 통해 운영 효율을 최적화하는 전력 시스템을 의미한다.

*재산업화 전략

유럽의 대외 수입 의존도 완화를 핵심 목표로 한 농업, 전기차, 원자력, 우주항공, 생명공학 등의 내재화를 위한 투자 전략.

제조업의 서비스화

'기획-생산-유통-판매-유지보수' 등 제조 전 과정에서 서비스를 부가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파생시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인재 육성 및 해외 인재 유치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규모별 차등을 적용하는 R&D투자세액 공제율을 주요 7개국^{G7} 평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최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포스트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글로벌 기업이 국가 지원을 통해 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중소기업에도 선제적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한 친환경 혁신 공정으로의 전환, 탄소 배출 저감 기술 개발, 에너지 사용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또한 스타트업 등 국내 혁신 기업의 해외 핵심 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시 적용되는 까다로운 근무 경력 및 학위 요건 완화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하고,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 강화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제도 개선을 통해 신산업 육성의 걸림돌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 지속을 위한 혁신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역시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혁신이자 신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 중이다. 전체 제조 과정에 걸쳐 서비스를 더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파생시킴으로써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 효율성과 이윤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제조 기업도 역시 초개인화, 자율화, 구독경제 등에 발맞춰 가치사슬 단계별로 서비스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제조 5개국(미국·독일·일본·중국·한국) 중 한국은 여전히 제조 서비스화율이 가장 낮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미래인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즈니스 매칭·테스트 베드 활성화 △원천기술·솔루션 개발 지원 △국제표준화 참여 및 통계 인프라 정비 △전문 인력 양성 및 홍보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의 신글로벌 전략 수립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속에서 GVC의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시도와 기술안보 강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한다. 미국, 유럽연합^{EU}의 경우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에 따른 공급망 교란 위험을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핵심 전략 산업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체 공급망 구축에 나설 경우 현재 생산효율에 기반해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도전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자급률이 높아지면 우리 제품의 대^외중국 수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거대한 역내 시장을 보유한 미국, 독일 등과는 달리 내수시장 위주의 성장 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생산체제의 유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GVC 재편의 흐름 속에서 중국, 대만, 아세안 등 역내(아시아권)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선진 소비 시장 또는 기술 개발 거점국으로의 이전^{Nearshoring}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의 투자 유치 정책에서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경쟁국들보다 한발 앞선 전략적인 판단 또한 중요할 것이다.

한국 무역의 퀀텀점프를 위한 로드맵

지금까지 우리 무역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과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한국 무역의 차세대 성장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래 한국전쟁, IMF 외환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적극적인 산업 육성, 대외 개방과 세계 시장 진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규모와 무역 규모 모두 10위권에 자리하는 글로벌 강국으로 우뚝 섰다.

이제 한국 무역은 또다시 위기를 기회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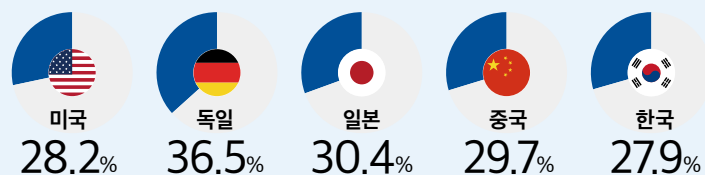


2022 스마트팩토리·자동화산업전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경제 확산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통한 판매, 마케팅, 생산 방식의 디지털화로 제조·서비스 융합을 촉발시키고 있다.

아, 새로운 퀀텀점프를 도모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 앞서 제시한 차세대 한국 무역 성장 로드맵 중 2차전지, 전기차, 콘텐츠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헬스, 스마트그리드, 우주는 중요한 유망 신산업이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분야다. 또한 취약한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높은 중국 의존도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리스크 요소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더 높이 도약할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것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제조 5개국 제조업의 서비스화 현황 비교(2021)



주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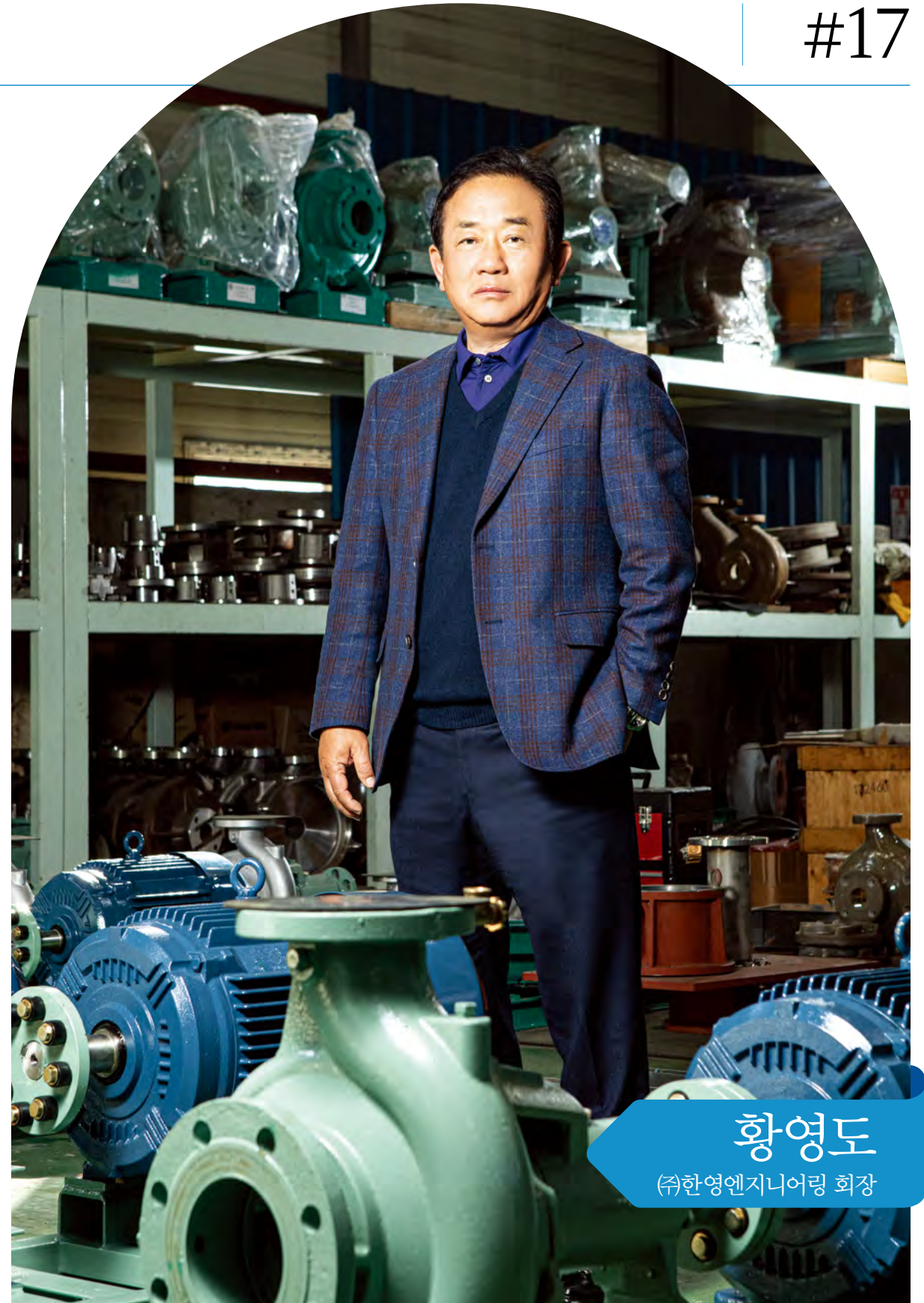
(주)한영엔지니어링

고객 만족 향한
집념이 일군
내산 분야 기술력의
자부심

한영엔지니어링은 회사 창립 이후 내산·내화학성 탱크와 펌프 등 각종 내산 기기의 생산·판매에 주력해 온 내산 기기 전문 제조업체다. 전통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2차전지 소재 산업과 플랜트 구조물 제작·설치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황영도 한영엔지니어링 회장을 만났다.

한영엔지니어링은 지난 30여 년간 화학 플랜트와 환경 설비 분야에서 입지를 구축해 왔다. 화학 및 제철 공장은 부식을 일으키기 쉬운 용액이나 약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물질은 일반적인 철 소재로는 이송하거나 저장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따라 내산성이 강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폴리비닐리덴플로라이드^{PVDF}, 폴리염화비닐^{PVC} 등 금속을 대체하는 고성능 플라스틱 소재로 펌프와 탱크 등의 설비를 제조하는데, 이러한 분야를 바로 '내산 분야'라고 한다. 한영엔지니어링은 화학 및 제철 플랜트 내산 기기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철강 및 발전^{發電},

화공약품 제조 산업에 기여하고 있다. 한영엔지니어링의 사업 조직은 크게 플랜트사업부와 환경사업부로 나뉜다. 플랜트사업부는 화학 및 제철 플랜트의 엔지니어링과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이송용 펌프, 저장용 탱크, 파이프 등 각종 내산 장비를 제조한다. 환경사업부는 화학 및 제철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가스나 분진을 제거하는 집진 설비와 폐수 처리 설비를 설계·제작하는 일을 도맡고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리튬 생산 공장에 각종 내산·내화학성 탱크와 펌프 제품을 공급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 가는 중이다.



황영도

(주)한영엔지니어링 회장



“하나의 공정이 끝나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때마다 철저한
품질 관리와 마무리 작업으로 최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로 선보이는 기술 경쟁력 한영엔지니어링은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분야의 인재 영입과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기술 경쟁력·품질 앞세워 사세 확장

한영엔지니어링의 전신인 한영특수내산 펌프는 1980년 설립 당시만 해도 내산펌프를 주로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에 불과했다. 조금씩 사세를 넓혀 가던 이 회사는 설립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어음 부도라는 위기에 처했다. 당시 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31세의 황영도 회장은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으나 주변의 거듭된 권유로 회

사를 인수했다. 10년 조금 넘게 운영된 회사가 맥없이 주저앉는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컸기 때문이다. 다소 급작스럽게 회사 오너 자리에 오른 황 회장은 실력 있는 엔지니어를 영입해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벤더(공급업체) 등록을 추진하는 등 공격적으로 판로 개척에 나서며 경영자로서 면모를 갖춰 나갔다.

“초기에는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 다들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산업 현장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죠. 당시 회사가 부산에 위치하고 있어 울산 지역 화학 공장들과 주로 거래하면서 수주 물량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업들과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 자금 회전이 어렵고 부도 위험도 컸어요. 그래서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하기로 방향을 잡았죠. 그러려면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야 했어요. 엔지니어 인재 영입과 산학 협력 등을 추진하며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벤더 등록으로 공급처를 확보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 나갔죠.”

황 회장은 1996년 ‘한영엔지니어링’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기술 경쟁력과 품질을 앞세워 사세 확장에 속도를 냈다. 자체적으로 기술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제품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콤팩트화하고 자동화를 실현하면서 제조원가를 줄여 나갔다. 또한 제품의 내산 성능 효율을 높이고 제품 수명을 늘리는 등 품질 향상에 회사의 명운을 걸다시피 했다.

뿐만 아니라 2000년에는 품질경영 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9001’ 인증을, 2005년에는 환경경영 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경영 체계 구축에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포스코 소싱그룹 등록을 추진하며 판로 확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해외 지사와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마련에도 나섰다. 회사의 사업 확장이 지속되면서 2003년 경남 김해로 본사와 공장을 확장 이전한 데 이어 2010년 현 경주 부지로 이전했다. 이 같은 행보는 고객사와의 탄탄한 신뢰관계 구축과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회사의 경영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EPC 역량 기반 2차전지 신사업 속도

한영엔지니어링의 강점은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력과 품질 향상에 힘을 쏟는 동시에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맞춰 기민하게 대처해 왔다는 것이다. 이미 20년 전부터 기계설비공사면허를 취

득하고 철골 관련 구조물 공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설비의 설계부터 구매, 설치EPC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토털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설비 납품 후에도 정비사업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주력 사업의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중국 내 업종별 제작 전문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2021년 5월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리 능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지사를 설립했다.

“중국지사 설립으로 한국과 중국의 장점을 접목해 글로벌 시장 대응력을 키우고 가격 경쟁력을 높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 관리 측면에서도 노하우를 쌓아 가고 있습니다.”



한영엔지니어링 아르헨티나 공장 준공식
한영엔지니어링은 지난 2022년 11월 아르헨티나에 ‘한영 아르헨티나 카사 캄포 키하노에 유리섬유 케미칼 탱크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

전 세계적으로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산업 분야에도 진출했다. 광석, 염호를 비롯해 수명이 다한 배터리에서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과 니켈 추출 공정에 필요한 설비 설계와 제작, 공급에 나선 것이다.

특히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포스코의 사업 행보에 발 맞춰 2016년 아르헨티나 법인을 설립하고 포스코 리튬 생산 공장에 핵심 기자재를 공급·설치한 바 있다.

한영엔지니어링은 아르헨티나 소금호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포스코 핵심 사업의 초기 단계인 2017년부터 참여해 시험 설비인 파일럿 플랜트 **Pilot Plant**를 비롯한 데모 설비를 성공적으로 설치·공급한 데 이어 본 설비 1단계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이 사업에서 토건 공사를 제외한 설비와 기자재 50~60%를 한영엔지니어링의 주력 품목으로 채우는 성과를 올렸다.

“리튬 생산 공정에 소요되는 탱크는 그 크기가 상당해 이송도 어렵고 정교한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그만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이송하게 되면 물류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회사의 정예화된 고급 기술인력 30여 명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영엔지니어링이 고객사와 탄탄한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보다 철저한 품질 관리 능력에서 찾을 수 있다.



한영엔지니어링 주요 기록

2000년
품질경영 시스템
ISO 9001 인증 취득

2005년
환경경영 시스템
ISO 14001 인증 취득

2016년
아르헨티나 법인 설립

2021년
중국지사 설립

2022년
아르헨티나 공장 설립

이는 기술 경쟁력과 제품 품질에 대한 고객사의 신뢰를 얻는 것이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라는 황 회장의 믿음에서 기인한다. 경주 본사 공장 내부에도 ‘품질 혁신 없이 고객 만족 없다. 품질이 최우선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을 만큼 품질에 대한 그의 고집은 남다르다.

“설계 단계부터 현장과 치밀한 협의를 거쳐 도출한 최적의 설계를 바탕으로 하나의 공정이 끝나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매 순간마다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이를 통해 최상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황 회장은 단기적으로 2차전지 부문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신규 물량을 수주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력 생산 제품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실경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취급 품목을 늘리면 좀 더 다양한 고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산 설비 부문의 독자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관리 인력을 정예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원가 경쟁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혹독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History

1980. 06

한영특수내산펌프 설립

1996. 12

한영엔지니어링으로 상호 변경

1999. 10

녹산국가산업단지 확장 이전

2000. 10

ISO 9001 인증 획득

2003. 04

본사·공장 김해 확장 이전

2005.

ISO 14001 인증 획득

2007. 09

포스코 내산·내화학
소싱그룹 등록

2008. 04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2010. 04

본사 경주로 이전

2016.

아르헨티나 법인 설립

2020.

한국기업데이터 기술 역량
우수 기업 인증서 취득

2022. 11

아르헨티나 공장 설립



STRENGTH

(주)한영엔지니어링의 4가지 핵심 경쟁력



철저한 품질 관리

최적의 설계를 시작으로 각 공정별 철저한 관리와 마무리 작업을 통해 최상의 품질과 성능을 끌어내는 것이 원칙이다.



신시장에 대한 발 빠른 대응

급변하는 시장 흐름에 맞춰 전통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2차전지 소재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기술력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

인재 영입과 기술 개발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기술연구소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이루고 있다.



전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

중국 해외지사 및 아르헨티나 법인 설립은 글로벌 시장 대응력을 키우고 가격 경쟁력을 높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창업

1980년
(1991년 인수)



본사

경북 경주시 천북면
천북일반산업단지



주력 제품

내산 펌프 및 탱크,
플랜트



인원

60명



2022년 매출액

310억 원



2023년 매출 목표

550억 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탄소중립을 위한 거대한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청정에너지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석유·가스 사업을 이끌고 있는 10대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84%, 4대 메이저(BP·셸·세브론·엑슨모빌)의 점유율은 65%로 이들 기업의 사업 영역이 변화하는 시점이 전 세계가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RWE 풍력발전소

독일의 RWE는 2040년까지 화석에너지 중심의 전력 생산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며 풍력발전단지, 태양열 시스템 및 에너지 저장 솔루션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저탄소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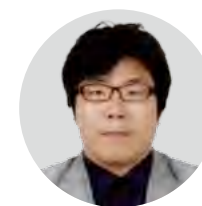
총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제품을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의 상당 부분을 에너지 비용(2021년 기준 1,372억 달러 수입·전체 수입액의 22.3%)으로 지출하고 있다. 화석연료 경제하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둬왔던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화석연료의 생산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전력과 수소경제로의 전환 계획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업들이 제시한 대부분의 목표가 장기적이고 구체적이지 못

하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래쪽의 표는 주요 석유 기업의 저탄소 기술 개발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회사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 석유 회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석유·가스 회사 셸^{Shell} 같은 유럽 기업은 석유에서 청정에너지 기술로의 확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석유·가스 회사 세브론^{Chevron}과 석유 회사 엑슨모빌^{ExxonMobil} 같은 미국 기업은 청정에너지 기술로의 확장 대신 공정배출저감 목표를 제시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재생에너지 기술 주요 투자’ 부분을 살펴보면 BP와 셸은 풍력, 태양광, 수소, 바이오연료 등에 공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상용 기술이 존재하

는 풍력, 태양광을 기본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고 있으며, 바이오에너지는 기존 설비를 이용해 원유를 대체하거나 신공정을 도입하더라도 내연기관과 같은 기존 시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기업이 관심을 두고 있다. 경우에 따라 해상 풍력,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을 차세대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목표도 수십 기가와트^{GW} 수준까지 제시하고 있다.

‘석유 생산 공정에 저탄소 기술 적용’ 부분을 보면 모든 기업이 기존 석유 생산 공정에 무탄소 연료,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도입과 같은 저탄소 기술을 통합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설비를 최대한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이은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에서 바이오에너지, 청정수소생산, 산업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바이오연료포럼 총무이사, KITECH 청정기술전략기획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석유 기업의 저탄소 기술 개발 현황

	BP	셸	세브론	엑슨모빌
석유→청정에너지 기술로 확장	○	○		
공정배출저감 목표 설정			○	○
석유 생산 공정에 저탄소 기술 적용	○	○	○	○
재생에너지 기술 주요 투자	육상풍력, 태양광, 바이오연료, 전기차 인프라, 배터리	해상풍력, 수소, 바이오연료, 전기차	-	정유설비 투자 유지 및 확대, 탄소 포집 및 저장 ^{CCS} 투자
재생에너지 목표	2030년까지 50GW	2030년까지 연간 30억 달러 투자(수소 포함·80%를 재생전력 투자)	-	-
저탄소 이니셔티브 참여	재생에너지 기업과 합작투자 매년 50억 달러 저탄소에너지에 투자	재생 가능한 스타트업 및 혁신 허브에 대한 투자	획기적인 저탄소 기술에 투자 (Future Energy Fund)	20개 이상의 신규 CCS 프로젝트 추진 예정. 미세 조류 ^{Algae} 와 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를 바이오연료로 전환 연구

자료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보고서 재정리,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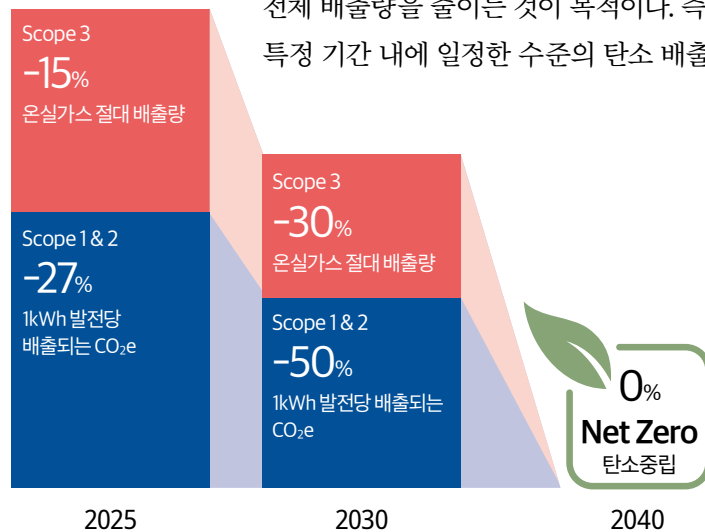


*우드펠릿

임업 폐기물이나 벌채목 등을 분쇄 톱밥으로 만든 후 길이 4cm 내외 직경 4~6mm 내외의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해 가공한 청정 목질계 바이오연료.

한편, 주요 석유 기업들이 내세우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회사별 장·단기 목표 및 전략을 읽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4대 메이저 기업 모두 단기 목표로 2030년까지 최대 30% 내외의 탄소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50년 배출 저감의 경우 기업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간접 배출을 모두 포함해 배출한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Net Zero)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품의 탄소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2050년까지의 배출 저감 목표에 대해 유럽의 기업들은 절대 목표(Absolute Target)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미국 기업은 강도 목표(Intensity Target)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절대 목표는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의 전체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즉, 특정 기간 내에 일정한 수준의 탄소 배출

RWE의 기후 목표



주 Scope 1: 직접 배출(공정열·수송 시 온실가스 배출·공장 내 비산 배출·제조 공정 배출)
Scope 2: 기업 소유 자산에서의 간접 배출(기업이 구매한 전기를 스팀·냉방에서 유래된 배출)
Scope 3: 소유 자산을 제외한 간접 배출(출퇴근 관련 업무스트림 배출·소비자 유통·제품 폐기 시 발생하는 다운스트림 배출) 자료 RWE, 2022

량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인 것이다. 이는 기업이나 국가의 전반적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된다. 반면 강도 목표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단위당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제품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영향은 유럽과 미국의 정부 정책, 시장 환경 및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석연료 OUT!

저탄소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

한편 발전(發電) 분야의 대표적 기업으로 독일의 RWE와 영국의 드래크스(DRAX) 그룹이 저탄소 분야 사업의 좋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2020년 독일 정부가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완전 폐지'를 선언한 이후 RWE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업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RWE는 2040년까지 화석에너지 중심의 전력 생산에서 완전히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며 풍력발전단지, 태양열 시스템 및 에너지 저장 솔루션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드래크스 파워(DRAX Power)는 전력에너지 600 메가와트(MWe)급 석탄보일러 6기를 보유한 영국 최대 화력발전소로 2018년 기준 총 4기의 석탄보일러를 바이오매스 전소 보일러로 교체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석탄 발전량을 30%대로 줄이고 바이오매스 발전 비율을 67%가량으로 높일 수 있었

다. 드래크스 파워에서 1년에 사용하는 우드펠릿(Wood Pellet*)은 700만 톤 이상으로 이는 국내 발전 부문에서 활용하는 총 바이오매스(우드펠릿·바이오-SRF 포함)의 양과 비슷한 수준이다. 석탄화력발전소 및 송전 설비를 그대로 이용하되 바이오매스로의 연료 전환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1,200만 톤 이상 감축했으며 배출가스를 활용한 CCUS 사업 추진 등을 통해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 발전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탄소 연료 전환

중소기업에 기회가 되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화석연료의 활용을 줄이는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저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전력 확보가 용이한 발전 부문의 경우 풍력, 태양광을 중심으로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거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되 바이오에너지 등 저탄소 연료 전환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석유·가스 부문의 경우 오일 메이저 회사를 중심으로 저탄소 분야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 부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요처의 변화 속도가 느린 특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에너지 공급망의 혼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석유·가스의 수요 증가 등이 저탄소 사업으로의 전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5개 오일 메이저 회사가 세계 시장의 90%



셸의전기자동차충전소
2022년 영국 런던에 최초로 설립한 전기차 충전소. 석유·가스 회사 셸은 석유 기반에서 청정에너지 기술로의 확장을 선도하고 있다.

를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가스 산업의 저탄소화는 그동안 에너지 기반 기업이 그려 왔던 지형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정된 지역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던 화석연료 산업은 이제, 넓은 영역에 낮은 에너지 밀도로 존재하는 태양, 바람, 수소, 바이오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진출할 수 없었던 거대한 시장에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접근이 가능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천연가스 기반 탄소 무배출(CO₂-free) 수소생산 기술, 바이오연료 활용 기술, 산업 부문 무탄소 에너지 전환 기술, 다양한 분산 발전 및 에너지 저장 기술은 중소·중견기업이 거대 에너지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내 관련 기업에서도 주목해야 할 저탄소 사업 분야다.

지도로 보는
글로벌 마켓미국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 따른 폐쇄

미국 내 자산 기준 16위 규모의 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지난 3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당국에 의해 폐쇄되었다. 이번 사태는 미국 고금리 충격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은행 방문이 필요 없는 스마트뱅크 이용자의 대규모 예금 인출, 직전 가상화폐 전문 은행 파산으로 인한 신용경색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주요 언론에 따르면, 아시아 경제는 금리 인상을 상당 기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SVB 붕괴가 아시아권 은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
영국, 채소 공급난 지속으로
채소 구매 제한

채소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영국 주요 슈퍼마켓 체인들이 소비자의 채소 구매를 제한했다. 영국 농업단체 '레아 밸리 재배자 협회(LVGA)'의 리 스타일스 사무국장은 "영국에 들어오는 모든 식료품의 양이 예상 수입량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영국은 농작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더불어 브렉시트 이후 노동력 부족으로 채소 품귀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영국 정부는 "최근 스페인과 북아프리카에 눈서리가 몰아쳐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중국, 코발트의 글로벌 공급
통제 강화 추세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금속인 코발트가 생산량 급증으로 인해 32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해 중국이 코발트 공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2022년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은 전년 대비 23% 또는 3만5,000톤 증가했으며, 공급 급증세가 수요 증가의 2배를 넘으며 가격 붕괴로 이어졌다. 현재 중국과 콩고 기업이 수산화 코발트 반제품 수출을 두고 로열티 지급을 협상하고 있는데, 이 협상이 성사되어 물량이 한꺼번에 국제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다면 코발트 가격이 수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일본 자동차부품 회사
자국 회귀 움직임 확산

일본 자동차 기업이 인건비 등 생산비가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자국으로 생산시설을 다시 들여오고 있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자동차 해외 생산의 이점도 존재하지만, 공급망 리스크와 해외 인건비 상승, 환율 변동 등을 감안하면 일본 내 생산이 제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일본에서도 임금 인상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의 유턴으로 인한 비용 감축 효과는 한정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연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허용하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연장에 합의했다.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로가 봉쇄되어 글로벌 식량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튀르키예와 유엔의 중재로 지난해 7월 성사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가 3개 항구에서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 러·우 간 의견 차이로 인해 협정 만료 당일인 지난 3월 18일 가까스로 연장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러·우 전쟁 항의 시위

지난 2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는 러·우 전쟁 1주기를 맞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러·우 전쟁은 전쟁 당사국 외 세계 국가들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러·우 전쟁으로 위기를 맞은 국가들

2022년 2월 말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군사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쟁 당사국 외에 세계 다수의 국가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남아시아 지역을 연구했으며,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러시아·유라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초의 경제 전망에서 전쟁이 유럽과 저소득국의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전쟁의 영향으로 세계 국가의 3분의 1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성장 잠재력 타격

전쟁의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당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원유·천연가스 부문이 국내총생산(GDP)의 18.1%, 재정수입의 38.3%, 수출의 58.3%를 점유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는 향후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경제 제재로 인한 에너지 수출 감소에 따라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 원유 수출의 49%, 천연가스 수출의 74%를 점유하는 최대 에너지 시장인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 중단은 장기적 성장 잠재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도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전쟁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이르는 8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향후 국가의 성장 동력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EU에 미치는 전쟁의 영향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EU가 받는 타격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0.7% 성장에 그쳐 세계 평균인 2.9%나 선진국 평균인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원유의 29%, 천연가스의

43%, 석탄의 54%를 수입하는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 제한 조치는 에너지 공급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EU는 러시아산을 대체해 미국, 노르웨이, 중동 등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산 에너지 대체 수입에는 관련 인프라 건설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대에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EU의 에너지 공급은 차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떠난 난민들이 동유럽 국가들로 유입되면서 이 국가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체 피난민 수는 대략 813만 명이며, 유럽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임시로 등록된 피난민 수는 492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주로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 인근 동유럽 국가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국가들의 사회·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 식량문제 지속

한편 전쟁은 흑해 항만의 곡물 수출에 차질을 주어 이 지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 비중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위기를 촉발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 곡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밀 34.1%, 옥수수 15.3%, 보리 26.8%, 해바

라기씨 23.9%, 해바라기유 72.7%를 기록하고 있다. 이 곡물들은 대부분 흑해 항만을 통해 수출되는데, 2022년 2월 말 러·우 전쟁 직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를 봉쇄했고, 이는 세계적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중단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8월 케냐, 수단, 지부티,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의 국가들이 심각한 식량위기를 맞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까지도 다수의 곡물 수출국이 자국의 식량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세계 곡물 시장의 수급 불안정성은 지속되고 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으로 총 23개국이 농산물 수출을 금지했으며, 품목도 28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에서 곡물 수급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물가 급등과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2022년 2월부터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러·우 전쟁은 유럽의 선진국과 동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많은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너지와 식량이 각국의 사회·경제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경제위기를 넘어 정치위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전쟁 당사국과 주요국들의 외교적 협상을 통한 전쟁의 종식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계 각국의 밀 수출량



러시아
3,300

호주
2,750

미국
2,136

우크라이나
1,960

단위: 만톤
주: 기간 2021.7~2022.6
자료: 미국농무부(USDA)



해외 진출 앞둔 환경기업 주목!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폭염, 한파, 가뭄, 홍수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환경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제공하는 종합 무역 컨설팅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환경기업

수질·폐기물·토양·대기·해양 오염 등 환경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산업을 뜻하는 ‘환경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환경 산업체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 기간

2023년 1~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방법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홈페이지(konetic.or.kr)에서
신청



제출 서류

회사소개서
(수출제품소개서 포함)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02-2284-1778)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컨설팅 지원사업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이상 환경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녹색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때 국내 환경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나섰다.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을 통해 환경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도록 돕고 이때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문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국내외 무역 전문가 79명과 전문 법인으로 구성된 해외진출자문단에서 제공한다. 총 10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해외 시장 개척 △온라인 마케팅 △무역 실무 △기술 이전 △외환·무역금융 △국제 입찰 △해외 투자 △계약서 검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관세·통관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기업당 연간 1,000만 원(회당 300만 원 한도)이고 전문 법인의 컨설팅을 받을 경우 기업당 연간 2,000만 원(회당 1,000만 원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00% 정부에서 부담한다.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or.kr)에 접속한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기업의 기본 정보와 부가 정보, 자문의뢰 내역을 입력한 후 기업 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평가 항목은 기업 건전성(55점), 수출 수행 능력(30점), 수출 의지 및 자문 필요성(15점)으로 구성되며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에 한해 승인이 이루어진다.

승인이 결정되면, 희망 분야와 전문가 일정 등을 조율해 컨설팅을 매칭한다. 컨설팅은 약 1~3개월 정도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

무역 실무 전문가에게 해외 시장 정보 조사와 해외 마케팅 계획 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과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회의를 위한 수출 제품 분석, 상담 통역 등을 제공받는다. 계약의 성립부터 종료까지 발생하는 수출 계약과 무역 서류 작성, 대금 회수 등 실무에 대한 자문 역시 가능하다. 전문 법인으로부터는 해외 입찰과 관련 계약서를 검토받을 수 있으며, FTA 교육 및 관세 절감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매년 2.63%씩 성장하는 ‘세계 환경 시장’을 기회로!

2022년 세계 환경 시장 규모는 1조3,421억 달러로, 2020년 이후 연평균 2.63%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관련 FTA도 확대되고 있어 국내 환경기업들이 세계로 도약할 기회다. 하지만 아쉽게도 환경기업의 FTA 활용도는 다른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20년 기준, 전체 산업에서 74.7%가 FTA를 수출에 활용하고 있는 반면, 환경 산업은 28.6%에 불과하다. 환경기업을 위한 FTA 전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외진출자문단의 자문위원 구성과 역할은?

무역 전문가 무역 실무 경험을 보유한 국내의 전문가 해외 시장 조사, 해외 시장 개척, 기술 이전, 온라인 마케팅, 무역 실무 등 지원

전문 법인 법무법인, 관세법인
계약서 검토, FTA 관련 전문 컨설팅, 관세 환급 지원, 수출입 리스크 관리 등 지원



FTA 활용해 환경 제품 및 설비를 수출하고 싶다면?

우선 FTA 협정 발효국이라면 품목번호^{HS}를 확인해야 한다. FTA 관세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원산지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수출신고 수리 및 관련 서류를 보관하면 된다. FTA를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FTA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의 문을 두드려보자.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진행 절차

STEP1	자문 신청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or.kr)에 접속한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회사소개서·수출제품소개서)
STEP2	자문 승인	기업 건전성(55점), 수출 수행 능력(30점), 수출 의지 및 자문 필요성(15점) 평가 후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 승인
STEP3	전문가 매칭	기업의 희망 분야와 전문가 일정 조율 후 매칭
STEP4	컨설팅 진행	애로사항 해결(약 1~3개월 소요)
STEP5	결과 보고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

지원 시 참고사항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국내 매출 실적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컨설팅 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당해연도 수출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SG를 넘어 CSV로

네슬레
울프 마크 슈나이더

네슬레^{Nestlé}는 세계 최대 식품 기업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평판은 그리 좋지 못했다. 식품 안전, 아동 착취, 환경 파괴 등
이른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2017년 울프 마크 슈나이더 취임 후 달라진 네슬레를 통해
우리 기업에 시사하는 바를 짚어보자.



강준형
도서출판 경제21C 대표
경제 분야 출판사를 운영하며,
관련 강의, 집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딱 이만큼의 경제학>,
<알기 쉽게 풀어 쓴 경제학
시리즈> 등을 출간했다.

‘식품공룡’ 네슬레의 두 얼굴

네슬레의 역사는 1866년 앙리 네슬레가 영
글로-스위스 연유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 공장을 확대하
고 식품군에 초콜릿을 추가했다. 1938년에
는 물만 부어서 마실 수 있는 커피인 네스
카페^{NESCAFÉ}로 큰 성공을 거둔다. 이후 초콜
릿 우유 음료인 네스퀵^{Nesquick}을 개발했
으며(1948년), 초콜릿 바 킷캣^{KitKat} 제조사를
인수하는 등(1988년) 덩치를 키워 나간다.
그렇게 네슬레는 연매출 약 9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종합 식품 기업으로 성장한다.
한편 2010년,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유튜브에 1분 남짓한 동영상을 게시한다.
한 직장인이 업무 중 네슬레 킷캣을 먹는
장면인데 이것은 오랑우탄의 손가락이었
다. 그가 한 입 베어 물자 오랑우탄 손가락
에서 피가 떨어진다. 이 영상은 열대우림
을 훼손하는 기업으로부터 팜 오일을 납
품받는 네슬레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었다.

네슬레는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에 결국
해당 기업과 거래를 중지했다.
사실 네슬레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아프리카에 분유를 판
매하는 과정에서 영아 사망을 방관했으
며, 코코아 농장에서의 아동 노동력 착취
는 목인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돈
만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경영진의
태도였다.

네슬레의 이방인, 슈나이더

그런 네슬레가 2017년 외부 출신 최고경
영자^{CEO} 영입을 발표한다. 주인공은 울프
마크 슈나이더^{Ulf Mark Schneider}. 슈나이더는
독일 출신의 기업가로, 1965년에 태어났
으며 경제학을 전공했다. 네슬레 이전에는
의료·제약 회사에서 일했다. 이렇듯 식
품 업계와는 거리가 있던 그가 CEO로 취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아무리 대기업이
라도 사회적 책임을 방관한다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그렇게 네슬레는 ‘95년 만의 외부 CEO
발탁’이라는 파격적 결단을 내린다.

가장 주목할 것은 ESG, 즉 ‘네슬레=식품
회사’라는 공식을 깬 점이다. 제과, 아이스
크림 사업은 매각하는 대신 비건(채식) 기
업을 인수했다. 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 제
품의 당 함유량도 줄였다. 단순히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의 건강을 챙기
겠다는 뜻이다. 그 밖에 포장 용기를 재활
용품으로 대체하거나, 비건 참치라고 불리
는 식물성 해산물을 내놓는 등 친환경 대
안식품 출시로 기업 이미지도 개선한 결과
네슬레는 2019년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경영지수^{SDGBI}에서 글로벌 1위 그룹에 선
정되었다.

CSV^{Creating Shared Value}는 기업과 공동체가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말
한다. 네슬레는 자사 코코아 공급망 시스
템인 ‘코코아 플랜’을 고도화해 아동 노동
을 방지하며 일부 농가에는 교육비를 지원
하고 있다. 또한 농법을 개선해 숙련된 농
부를 양성하고 식수, 의료 등 기본 인프라
를 구축하는 데도 투자 중이다.

ESG와 CSV, 관망할 시기는 지나

흔히 ESG는 대기업이나 할 수 있는 것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미 수출 중소기업
이라든지 대기업 협력사를 중심으로 움
직임이 분주하다. ESG를 준비하지 않으면
납품에서 배제되거나 아예 거래를 중단하
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초 유럽연합^{EU}이 ESG ‘공급망 실사
법’ 의무화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 기업 수
출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에너지와 환경, 노동, 지속 가능한 성장 등
거의 모든 지표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쉬
운 일은 아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정부
와 금융권, 일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을 위한 ESG 지원에 나섰다. 가이
드라인을 비롯해 설명회, 컨설팅 등 ESG
교육을 잘 활용하면 도입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CSV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표 목록을 작성
하는 일이다. 다음 단계로 지표별 관리 용
이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분
류하고 세부 추진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무
엇보다 ESG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기업
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제도로 자리 잡
은 만큼, 단순히 기업 평판을 고려해 ESG
를 도입할 경우 그린워싱과 같은 리스크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낳을 때
우리는 지구를 보호하고, 재생하고, 복원하는 동시에
정의로운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

울프 마크 슈나이더

숫자로 보는
네슬레의 ESG

186개국
네슬레 제품 판매 국가


400만톤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2018~2021년)


230만 m³
공장에서 감축한
수자원 사용량


74.9%
재활용을 고려한 플라스틱
포장재의 비율


27.2%
최고 경영진 중 여성의 비율
주 2021년 기준
자료: 네슬레

마포 10기
도구공간

김진호 대표

시큐리티의 혁신으로 세상을
보다 안전하게

국내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과
보안 특화 인공지능^{AI}을 개발해
자율보안로봇^{ASR}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공간은 병원, 공원, 공장, 공공장소 등에서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Questions

01. 도구공간에 대해 소개해 달라.
02. 기술 개발 배경은 무엇인가?
03. 도구공간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04. 도구공간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Answers

- 01.** 도구공간은 자율주행 순찰 로봇 전문 기업이다. 실내 및 야외에서 활용 가능한 자율주행 솔루션을 기반으로, 순찰과 방역에 특화된 완성도 높은 로봇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
- 02.** 어려서부터 로봇에 대한 꿈이 있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대학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면서 로봇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율주행 로봇의 협업 시스템으로 박사학위 연구를 진행했고, 당시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로봇을 개발했다. 전통적인 인력 기반의 물리 보안 시스템은 노동력과 높은 인건비가 소요되고 위험성이 따르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도구공간은 기술 개발을 통해 물리 보안 시장에 혁신을 가져오고자 한다.
- 03.** 도구공간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개발했으며 현재 가장 많은 숫자의 로봇을 현장에서 운영 중이다. 기존의 자율주행 로봇은 레스토랑의 서빙 로봇, 물류센터의 물류 로봇과 같이 특정 환경 내 주행에 특화된 반면, 도구공간의 로봇은 실내외의 좁거나 넓은 지역을 막론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순찰과 보안 솔루션에 특화된 자체 개발 AI를 탑재해 사람보다도 예민하게 위험 상황을 검출할 수 있다.
- 04.** 전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은 2027년까지 약 189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자율주행 순찰 로봇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개발해 현장에 적용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도구공간은 이미 현재 30여 대의 로봇으로 장기간 현장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인 만큼 향후 세계 시장에서의 더욱 큰 성장을 기대 중이다.

로봇의 연구·개발만큼이나
함께 로봇을 개발하며
즐거워하는 동료들이 많아지고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
큰 동기부여이자 원동력입니다.

구로 9기
더감

김진욱 대표

전자기 하베스팅의
표준을 만든다

더감은 버려지는 전자기로부터 에너지를
수확하는 기술인 전자기 하베스팅^{Harvesting}
전문 기업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에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Questions

01. 더감에 대해 소개해 달라.
02. 전자기 하베스팅이란 무엇인가?
03. 더감 핵심 기술의 장점은 무엇인가?
04.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더감의 제품으로
친환경 시대에 꼭 필요한
전기차 시장을 개선하고
고객에게 더욱 합리적인 제품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Answers

- 01.** 최근 '탄소중립'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모빌리티 서비스의 저탄소 전환 및 친환경화 역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더감은 친환경 모빌리티를 구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의 전기에서 자연 발생하는 전자기를 하베스팅하는 에너지 효율화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 02.**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사용할 수 있는 유효 전력과, 사용 불가능한 무효 전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맥주를 잔에 가득 따르면 거품이 넘쳐흐르는데, 이 거품이 바로 전자파 형태로 사라지는 무효 전력이다. 맥주를 빨리 따르거나 높은 곳에서 따르면 더 많은 거품이 생기는데, 전자기 하베스팅은 이 맥주 거품과 같은 전자파를 리사이클링해 다시 사용 가능한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을 말한다.
- 03.** 전기차를 운행하며 발생하는 에너지의 손실은 주행거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에너지 손실 문제를 개선한다는 것이 더감 기술의 핵심이다. 주행 중 발생하며 버려지는 전자기 에너지의 약 70%를 회수해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하기 때문에 전자기 모빌리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의 이름처럼 말 그대로 같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더 가는' 것이다.
- 04.** 더감은 앞으로 글로벌 전기 이동 장치 시장에 우리 제품을 탑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먼저 국내 다목적 화물차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전자기 하베스팅을 전기차에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다. 올해 전기차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상용화를 거쳐 2024년부터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25년에는 중형 전기차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부산 8기

임팩티브AI

정두희 대표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임팩트'를 창출하다

임팩티브AI는 세계적 수준의 AI 예측 모델을 고객사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 적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Questions

01. 임팩티브AI에 대해 소개해 달라.
02. 구체적인 솔루션 적용 범위는?
03. 임팩티브AI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04.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

Answers

01. 2021년 7월에 설립한 임팩티브AI는 인공지능^{AI} 예측 모델에 전문화된 AI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회사다. 서울대, 하버드대, 피츠버그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을 졸업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I 기술 역량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기업(고객사)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솔루션 서비스 '딥플로우^{Deep Flow}'를 개발했다.
02.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신제품 아이디어의 1분기 매출 예측 △고성과 신제품 프로파일 사전 도출 △신제품 아이디어의 성공과 실패 가능성 예측 △수요 예측 기반의 재고관리 최적화 △단종까지의 수명 및 생애주기 총수익 예측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최적 가격 예측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수익성을 높이고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03. 현재 임팩티브AI는 머신러닝 기반의 100여 개 예측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올해 300개 체제로 늘릴 계획이다. 예측적 신제품 개발 방법 및 장치, AI를 기반으로 하는 신제품의 개발 방법, 머신러닝 기반의 고급 수요 예측 모델 등 AI 예측에 관한 특허를 10개 출원했고, 2023년에는 25개의 특허출원 및 등록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고도의 수요 예측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04. 임팩티브AI는 현재 국내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AI 예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아직 초기 진입 단계이지만 개발이 완료되어 올 5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주요 타깃 범위는 제조업과 유통업이다. 향후 5년간 연 300% 이상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AI 기술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날 때
거대한 기회를 만들 수 있음을
우리 조직의 역량을 모아
증명하겠습니다.

대전 3기

모쓰

이재형 대표

선박 추진력의 핵심,
세계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다

모쓰는 최고 수준의 캐비테이션^{Cavitation} 역량을 통해 기존 금속 프로펠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탄소복합재 프로펠러 시장으로의 진출을 겨냥하고 있다.



Questions

01. 모쓰에 대해 소개해 달라.
02. 시장 진출 계획은 어떠한가?
03. 모쓰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04.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

Answers

01. 모쓰는 선박용 탄소복합재 프로펠러를 설계·제조하는 기업이다. 선박 프로펠러는 작동할 때 심각한 소음과 부식을 야기하는 캐비테이션이 생기지 않는 최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모쓰는 고강도 탄소복합재를 이용해 최고의 캐비테이션 성능을 내는 프로펠러를 설계 및 제조하고 있다.
02. 모쓰가 바라보는 시장은 슈퍼 요트용 프로펠러 시장이다. 탄소복합재 프로펠러는 하이엔드 부품이어서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수천억 원 수준의 슈퍼 요트는 캐비테이션 소음에 민감하기 때문에 탄소복합재를 이용한 형상 설계는 기술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다. 모쓰는 시장에 막 진입하려는 기업이며 국내외 선급 인증과 시제품 제작을 통해 2023년 첫 제조 매출을 도출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할 예정이다.
03. 모쓰의 핵심 기술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성능을 최적화하는 설계 기술이다. 캐비테이션 설계는 설계 이론만 가지고는 이루기 쉽지 않다. 모델 시험과 실선 시험에서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설계해야만 하는 집약적 기술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탄소복합재라는 소재를 이용한 제조 기술이다. 탄소복합재를 이용해 수중에서 높은 하중을 견디며 캐비테이션 제어가 가능한 제품을 모델링하고 최고의 성능을 지닌 제품을 제작하는 것이 모쓰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04. 우리는 해외 슈퍼 요트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모쓰의 성장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을 계획이다. 우선 2023년은 슈퍼 요트 탄소복합재 프로펠러의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함정 프로펠러와 상선 프로펠러, 최종적으로는 항공기 프로펠러 시장까지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를 향해 그림을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다이나믹한 문제들을 해결해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IBK가 만난 이들의 기업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IBK기업은행과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를 향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방문했다. 꾸준한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이뤄낸 각 기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여정 역시 IBK가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응원을 전하는 시간이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글로벌 기업

[주]동보

●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지난 1월 인천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동보’ 본사를 방문했다. 동보는 엔진, 변속기, 모터, 감속기 부품 등 총 500여 종에 이르는 초정밀 자동차부품 생산 기업으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초석을 다지던 1966년에 창업해 현재까지 5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자동차부품 전문 기업이다. 현재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 2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며 연매출 3,500억 원, 수출고 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 등 국내 기업은 물론 르노-닛산, 제너럴 모터스^{GM} 등 글로벌 기업과도 협력하며 명실상부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동보의 성장에 IBK기업은행은 40년째 꾸준히 함께하며 오랫동안 서로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 특히 2006년 11월 준공해 현대자동차와 기아, 제너럴 모터스, 크라이슬러^{Chrysler}에 납품하는 8단 자동변속기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주 공장은 100% IBK기업은행의 지원으로 설립한 바 있어 그 관계가 더욱 끈끈하다.

동보 본사 시찰을 마친 김성태 은행장은 “동보에서 구축한 자동화 생산시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동보의 성장에 IBK가 변함없이 함께하겠다”는 인사를 전했다.



동보에 방문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동보는 자동차부품 분야에서의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이다.



주식회사 동보는? 인천, 경주, 아산, 창원 등 전국 주요 지역에 첨단 시설을 갖춘 대단위 생산기지를 가동하며 내연기관차 및 전기차 부품 등 총 500여 종에 이르는 초정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2018년 GDI 연료분배관의 구조에 관한 미국 국제 특허를 취득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유선형의 언밸런스 웨이트 및 이를 구비한 밸런스 샤프트 어셈블리, 자동차의 커먼레일 도금 마스크 공구와 같은 초정밀 자동차부품 관련 기술 특허를 취득하는 등 꾸준한 기술 개발로 국내 및 해외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동보는 지난 50여 년 동안 ‘글로벌 자동차부품 산업 선도 기업’이라는 미션 아래 생산기지의 지속적 확장, 첨단 설비 확충, 연구·개발^{R&D} 활동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신뢰경영, 정도경영 정신을 바탕으로 안정과 내실 성장의 토대를 구축했음은 물론, 경영 효율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과 변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고의 품질과 기술을 통한 100년 기업을 향해 동보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가치금융의 시작은 고객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그들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를 위해 우리가 진심을 다하는 것이 가장 큰 영업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이 되다

21세기기업[주]

● 지난 2월에는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에 위치한 ‘21세기기업’을 방문했다. 자동차 동력장치와 K1 계열 전차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21세기기업 역시 1966년 설립해 올해로 창립 57년을 맞이한 장수기업이다. 1980년대부터 방위산업의 핵심인 방산부품을 꾸준히 생산해 왔으며, 특히 K2전차의 펌프구동기는 지난 2019년 개조 개발 사업에 착수해 3년 만인 2022년 8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최종 평가를 통과했다.

‘흑표’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K2전차는 현대로템의 대표 방산 제품이다. 더운 나라나 사막 지역에 K2전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고온에 강한 펌프구동기가 필요했는데, 이에 21세기기업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협약을 체결, R&D에 나선 지 3년여 만에 K2전차 펌프구동기 개조 개발에 성공해 기존 제품보다 고온에 강한 동력 전달 장치를 실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1세기기업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59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2022년 칠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21세기기업 현장 소통을 마친 김성태 은행장은 수상 축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IBK는 고객의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1세기기업은? 강릉시 입암동에서 자동차정비사업으로 시작한 21세기기업은 1970년 제조업으로 사업을 전환, 자동차부품 생산 기업으로 발돋움 시작했다. 이후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1995년 유망 선진기술 기업으로 지정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수출 유망 중소기업(2000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2006년)으로 선정되는 등 그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 나갔다. 지난해에는 ‘2022년 칠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등 정밀기계공업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주요 거래처로는 현대·기아차, 현대우산인프라코어, 볼보그룹코리아, 현대건설기계, 전진건설로봇, 현대로템 등이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에 엔진 및 건설기계 부품과 농기계용 부품, 전차부품 등을 납품하며 세계적으로 수출고를 올리고 있다.

2005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기술 개발에 매진, 신제품 개발과 특허출원에도 주력을 다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 중인 21세기기업은 국내를 넘어 세계 기계공업의 선구자로서 나아가고 있다.



21세기기업에 방문한 김성태 은행장 21세기기업은 자동차부품 등 정밀기계공업의 대표 기업으로 최근 K2전차의 부품 개발에 성공,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을 책임지고 있다.



임진우
(주)드림에이스 대표

자동차를 기계적 관점으로 바라보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자동차의 전동화, 디지털화가 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제는 자동차를 소프트웨어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최상의 탑승자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oftware Defined Vehicle-SDV) 시대’다. 이러한 트렌드에서 앞서 나가려면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n-Vehicle Information-IVI) 솔루션이 필수적인데, 드림에이스는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모빌리티 통합 인포테인먼트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드림에이스는 2022년 IVI 기술과 이동수단 사용자 경험(UX) 노하우가 집약된 통합 IVI 솔루션 ‘다익(DAIC-多益)’을 출시했다. 다익은 클러스터(디지털 계기판), 중앙 정보 디스플레이(CID), 조수석 디스플레이(PD), 뒷좌석 디스플레이(RSE) 등 최대 6개 화면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로 묶었다. 즉, 각각의 화면에 하나씩 설치되어야 했던 프로세서를 하나만 설치하고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을 통해 여러 대의 디스플레이를 개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IVI 단가를 크게 절감시켜 완성차 브랜드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수급 불균형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으니,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솔루션이다.



<거래 기업 인터뷰>

IVI 분야의 애플을 꿈꾸다

한편 다익은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편리한 시스템이다.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활용할 수 있는 데다가, 네이버와 협업해 웨일 브라우저를 웹 플랫폼으로 채택함으로써 앱을 제공하지 않는 웹 서비스도 각각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마음껏 즐길 수 있다.

IVI를 넘어 ECU와 O2O 서비스까지

최근 자동차는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해 자동차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테슬라의 경우 구동부를 제어하는 전자제어 장치(ECU)까지 무선 업데이트함으로써 자동차의 움직임까지 개선한다. 이러한 기술적 흐름을 일찍이 알아챈 드림에이스는 IVI를 넘어 ECU 소프트웨어까지 끌어안음으로써 클라우드, IVI, ECU가 하나로 연결된 진정한 의미의 ‘모빌리티 커넥티비티(Mobility Connectivity)’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드림에이스는 다익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연결성을 외부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와 결합하려는 시도도 이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타이어 공기압에 경고등이 켜지면 정비 관련 서비스 업체가 정비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는 충전, 세차, 정비 등 자동차와 관련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체 운영체제(OS)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모바일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

DRIMAEIS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솔루션 선도 기업
(주)드림에이스

창립 연도 2015년
핵심 기술 IVI 소프트웨어
주력 제품 IVI 솔루션 ‘다익’

한 애플처럼 독보적인 IVI 운영체제를 토대로 새롭고도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 드림에이스의 비전이다.

드림에이스가 지금껏 선도적인 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IBK기업은행 달성공단지점의 금융 지원이 자리 잡고 있다. 설립 직후부터 달성공단지점과 거래하며 자금조달이 힘들었던 시기에 머리를 맞대고 함께 자금난을 해결한 것은 물론, 달성공단지점을 통해 모험자본 투자도 받는 등 안정적인 유동성을 기반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달성공단지점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드림에이스는 올 6월부터 다익을 완성차 브랜드에 본격적으로 납품하며 매출액을 빠르게 끌어올릴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초를 목표로 코스닥 상장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임진우 대표는 “내실 있는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로 달성공단지점의 금융 지원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진정한 모빌리티 커넥티비티의 실현
모빌리티 통합 인포테인먼트 솔루션 전문 기업 드림에이스는 독보적인 IVI 운영체제를 토대로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장승남
IBK기업은행
달성공단지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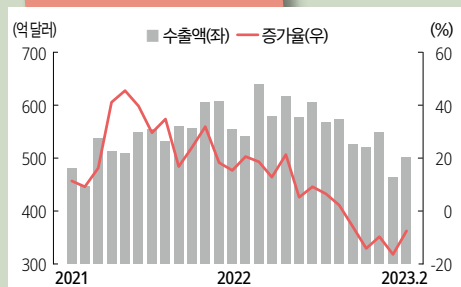
달성산업단지의 든든한 ‘금융주치의’

달성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의 한편에 자리한 IBK기업은행 달성공단지점은 2007년 8월 개점 이래 지금껏 인근의 중견·중소기업과 창업 기업의 금융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자동차, 섬유, 기계부품 등 산업단지 내 주력 업종의 특성에 맞춰 당행 금융 상품과 정책금융 상품을 다각적으로 안내,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힘을 보태 왔다. 드림에이스는 그 도움을 받아 성장한 대표 기업으로,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투자 및 보증자금 연계 자금 지원에 대한 활용 방안 제시 등을 통해 자금난 해소에 앞장섰다. 2022년 10월에는 모험자본 추천을 통해 당행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11월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주관하는 ‘프리아이콘(Pre-ICON) 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추가 사업자금 확보를 가능케 했다. 드림에이스가 달성공단지점을 ‘영원한 금융 파트너’로 꼽는 이유다. 장승남 지점장은 “드림에이스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기업들의 더없이 좋은 선택”이라며 “앞으로도 달성산업단지의 금융주치 의로서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력 중심의 창업 기업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해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KOREA

수출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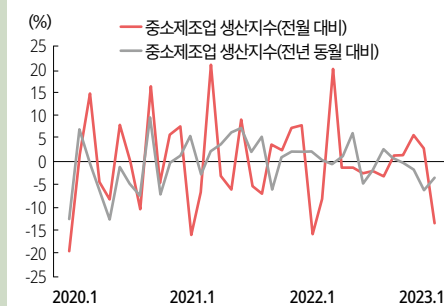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는 오름세 둔화

2월 수출(501.1억 달러)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가 지속되며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했고,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

2월 소비자물가는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국제 유가의 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 역시 개인서비스와 주택 가격 상승 둔화로 상승 폭이 축소(5%→4.8%)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되었다.

생산



자료 통계청

Small Business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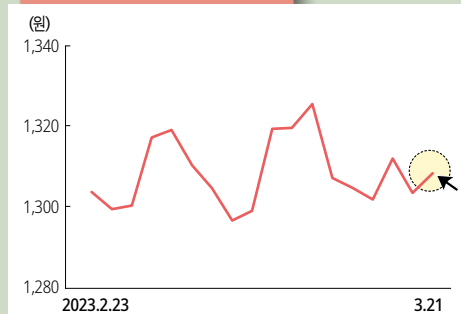
생산, 전월 대비 감소

2023년 1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로는 13.4%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통신·방송장비(111%), 자동차(9.6%), 1차금속(6.7%) 등에서 증가했으나, 반도체(-5.7%), 기계장비(-6.1%), 전자부품(-2.8%) 등에서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자동차(10.9%), 통신·방송장비(35.4%), 의약품(16.7%) 등에서 증가했으나, 반도체(-33.9%), 화학제품(-23.6%), 전자부품(-32.6%)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포함한 수치임.

Exchange Rate

원/달러 환율 동향



주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3월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이 큰 롤러코스터 장세

(2023.3.7일 1,296.7원→3.13일 1,325.7원→3.21일 1,308.4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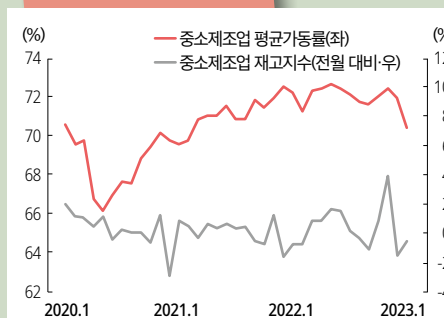
3월 원/달러 환율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악화된 국내 수출 지표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컸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은행 시스템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아 당분간 불안한 양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2분기 말 환율 전망은 1,277원

블룸버그에서 종합하는 주요 IB(11개사)의 2023년 2분기 말 원/달러 환율 전망은 평균 1,277원으로 조사되었다. '1,250원 이상 1,280원 미만'으로 전망한 IB가 BNP파리바(1,260원) 등을 포함해 6개사로 가장 많았다.

* 환율 전망 응답 시기: 2023.3.2~3.17일

가동률 및 재고



자료 중소기업중앙회·통계청

가동률, 전월 대비 하락

2023년 1월 중소제조업 전체 평균가동률은 전월 대비 하락한 70.5%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소기업(5~49인)은 전월 대비 2.3포인트 하락한 66.9%, 중기업(50~299인)은 0.5포인트 하락한 74.6%로 조사되었다.

재고, 전월 대비 감소

2023년 1월 중소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5%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반도체(28%), 통신·방송장비(22.6%), 전자부품(10.1%) 등에서 증가했으나, 컴퓨터(-53.6%), 1차금속(-5%), 화학제품(-3.8%)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재고증감률은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포함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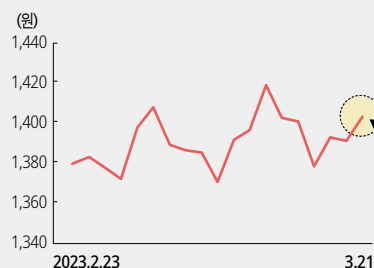
원/100엔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유로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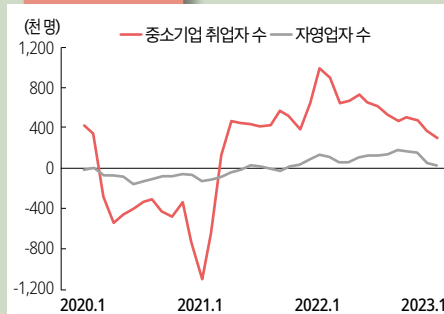
원/위안 환율 동향



주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고용



주 전년 동월 대비

자료 통계청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3년 1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만6,000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종업원 수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7만9,000명 감소,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37만5,000명 증가해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436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3년 1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만9,000명 증가해 549만9,000명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생형 정책보험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문제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기술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기술 유출·탈취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1.7%로, 평균 피해금액은 5.8억 원에 달한다.



서경관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산업연구실장
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전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 현황

조사 기업 ____ 2,095개사
피해 기업 수 ____ 35개사
피해 경험률 ____ 1.7%
총 건수 ____ 50건
총 피해금액 ____ 290억 원
평균 피해금액 ____ 5.8억 원

주 2017~2019년
자료 2020년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2021

기술 탈취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대기업은 여전히 계약 체결 전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제공된 기술자료는 기술 유용이나 납품 단가 인하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계약 체결 실패 및 계약 후 거래 단절 우려 등을 이유로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기술 탈취를 당하더라도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 우려와 피해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정부는 지난 3월 중소기업 기술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먼저, 이번 정책보험 상품의 가장 큰 특징

은 대기업,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중소기업 가입 부담을 기존 30%에서 10%로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 공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 보호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형 정책보험'을 도입했다. 대기업 등은 상생협력기금* 또는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해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력사 가입 지원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 올해는 국내 6개 대기업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의 공기업이 시범 참여하며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금 외에도 추가 지원(최대 20%)을 통해 정책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도 도입했다. 올해는 서울시가 정책보험 사업에 시범적으로 참여한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정책보험에 가입하면 정부 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지자체의 지

원(최대 20%)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자사의 기술 침해 예방 등을 위한 비밀유지서약, 경업금지약정 체결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기업에도 납입보험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더 많은 기술을 보호하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위의 확대

한편,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특허, 영업비밀에 국한했다면 앞으로는 디자인, 실용신안까지 포괄한다. '디자인권'은 2021년 기준 약 5.7만 건이 신규 등록되는 중소기업의 주력 기술 분야로서 이번 정책보험의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이 빈틈없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상생형 정책보험 상품을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문제가 중소기업만이 아닌 관련 생태계 문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더불어 대기업과 지자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보험사 협업을 통해 해외 분쟁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nformation

가입 부담은 낮추고 보장은 강화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상품 안내

구분	내용		
보장 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 과정에서 소요된 법률비용		
	· 국내 소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보험가입자의 담보물에 관련한 분쟁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벌금·과태료 등 불법에 기인한 손실은 보상 불가		
보장 내용	보상 가능 비용	보상 불가 비용	
	·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손해배상금(판결금액·화해금), 실시료 · 부당이득 반환금 · 벌금, 과료, 과태료 · 소송 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가입 대상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보험 목적물	가입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된 권리* 중 최대 3개 *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		
보험 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단기), 3년(장기)		
상품 구성	· 피소대응(기본), 소제기(특약) 구성		
	구분	피소대응(기본)	소제기(특약)
	내용	· 보험가입자 담보물(기술·권리)에 대해 타인(타사)이 제기한 법률 분쟁 - 경고장, 침해소송, 권리 무효소송 대응 등	· 보험가입자의 담보물(기술·권리)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 침해사실 조사,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 협상, 침해소송, 변호사 선임 등
	보장금액	최대 5,000만 원	최대 5,000만 원
	보험 효력	가입 즉시	(1년) 3개월 이후 (3년) 6개월 이후
	보험료	약 110만~200만 원 (산업별·매출별 상이)	약 150만~250만 원 (산업별·매출별 상이)
	보험료 할증·할인	· 최근 5년간 기술 분쟁 유경험 시 할증, 없는 경우 10% 할인 · 3년 계약 시 연 요율의 250% 적용 · 30개사 이상 동시(단체) 가입 시 10% 할인	
보상 조건	기술 분쟁과 관련 있는 민·형사소송 사건으로 보험 기간 이내 발생한(법원에 소*가 접수된) 사건		
자기부담금	무분별한 사고(분쟁) 유발에 따른 과도한 보험료 청구 방지를 위해 사고청구당 보험가입자의 부담 비율 설정(10%)		
판매보험사	5개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		

주 2023.3월 현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기금

'상생협력법' 제20조의5에 근거해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발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 기금. 이 기금은 성과 배분, 기술 협력 촉진, 인력 교류 확대, 임금 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된다.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한 여러 문제로 다시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려 했으나 관련 증빙을 갖추지 못해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 이번 호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현주
세무법인 세일 화성지점 대표세무사
전 IBK기업은행 기업지원 컨설팅부 수석세무사로 근무하며, 중소기업 가업승계 컨설팅을 100회 이상 진행한 바 있다.

2001년 7월 24일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수 제한이 없어 1인 주주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 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 ❶ 첫째, 명의수탁자가 변심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❷ 둘째, 명의수탁자 사망 시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❸ 셋째, 명의신탁자 가업승계 시 지분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 ❹ 넷째, 명의수탁자 신용 문제로 인한 주식 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의 문제로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고 싶었으나,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

명의신탁주식 해결을 위해 확인해야 할 것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세금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식의 환원, 주식의 양도, 주식의 증여 등의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방법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상당해 반드시 방법별로 예상되는 세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둘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과세관청에서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에 대해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다.

과세관청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세금이 낮은 방법이 있더라도 입증에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주식의 환원, 주식의 양도, 주식의 증여 각각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주식의 환원 주식의 신탁자가 수탁자의 주식을 되찾아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확인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 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주는 제도다. 이로 인해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 경영 및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 증여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주식의 양도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명의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양수도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거래내역 등을 통해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다. 이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등의 과세가 발생한다.

주식의 증여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명의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양도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아보고, 현재 명의 신탁이 된 주식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실소유자 환원 방법을 결정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확인제도 신청 방법

1)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대상자 요건(모두 충족)

- ①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②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
- ③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2)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단계별 절차

① 사전 상담(선택적)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전에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면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확인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② 확인 신청

신청인은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로 명의개서 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 환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필수 제출서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 명의신탁 및 실명 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임의 제출서류	주식대금 납입·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 신탁약정서, 설립 당시 정관·실제 주주 명부, 확정판결문 등

③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신청서 내용과 제출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며, 실명전환 주식의 가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실제 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로도 실제 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 질문, 현장 확인 등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실제 소유자 여부를 결정한다.

3) 확인 처리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

실제 소유자로 인정된 경우 환원하는 행위 그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초 명의신탁한 당시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유상증자를 했다면 증자 시점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배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인정하는 ‘갱신기대권’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2년 제한 규정의 예외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바로 정해진 근로 계약의 갱신을 인정하는 ‘갱신기대권’이다. 하지만 갱신기대권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갱신기대권에 대해 알아보자.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외국계 기업의 노무 인사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20여 년간의
노무 경험을 활용해 다양한 노동
사례 실무서적을 발간해 왔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1997년도 ‘정리해고법’과 ‘파견근로법’의 도입으로 무분별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발생했다.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을 제한하고 가급적 정규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제정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된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조). 이 규정은 기간제 계약 직원이 반복 갱신되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유도해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간제법 제4조에는 분명히 2년 이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2년 제한 규정의 예외 대상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갱신기대권’이다.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 근로 계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된 사례

근로자 A는 2년을 기간으로 한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 A가 회사와 합의한 근로 계약에 따르면, 근로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 계약 만료 1개월 전 회사는 A에게 근로 계약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회사는 근로 계약 해지 사유로 ‘인사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고 A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당시 회사의 인사평가 기준은 모호했고 객관성도 떨어져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

약을 체결했으나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부당해고와 같이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판례 법리다.

갱신기대권은 기간제 근로 계약에 갱신 조건을 가진 근로 계약 등이 있거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 경우에는 기간제 2년 사용 제한의 예외 대상인 전문직종 근로자나 고령자의 경우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다.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에서 일관적으로 인정되어 온 권리로 기간제법 제4조의 부속조항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 계약의 갱신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 근로 계약의 문구 등이 있거나,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상시 지속적 업무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특히, 기간제법의 예외 대상인 전문직 근로자, 정년 이후의 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상시 지속되는 업무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활용하고, 일시적인 업무나 갱신기대권이 성립하지 않는 업무에 한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것이다. 📌

2년 예외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직의 사례

전문직종 근로자인 사내변호사(원고)의 경우 근로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원고가 5년간 4회에 걸쳐 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했고, 회사 운영을 위해 상시적·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담당했으며, 그동안 사내변호사들이 스스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한 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원고는 근로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을 가진다.

계약 2년 후 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례

H자동차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짧게는 2주일에 서 많게는 6개월 단위로 14회에 걸쳐 근로 계약을 반복해 사용하다가 2년이 되는 시점에서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2015년 1월 31일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존의 다른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변경된 전례가 없었고,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으로 필요하지만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한시적 업무라고 판단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CEO의 즐거찾기

최고경영자^{CEO}의 지식, 품위, 즐거움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리스트

APP

일하는 사람들의 비즈니스 플랫폼
리멤버

리멤버^{Remember}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명함을 촬영하면 데이터로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명함 관리 애플리케이션이다. 특히 기업의 CEO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 명함을 받는데, 이렇게 받은 명함을 분실 걱정 없이 간편하게 저장해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직무·관심사별로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핵심 뉴스와 경제 브리핑을 통해 경제 동향과 인사이드를 확인할 수 있는 분야별 트렌드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BOOK

역발상 CEO 8명의 투자와 경영의 지혜
현금의 재발견
윌리엄 손다이크 지음

무엇이 성공한 CEO를 만드는가? 유명 CEO들을 보면서 카리스마, 소통의 기술 그리고 확신에 찬 경영 스타일을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50년간 뛰어난 성과로 회사를 경영했던 8명의 CEO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다.

저자는 이들의 경영 전략을 '관행타파 경영'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면서 8인의 공통된 경영 방식을 '역발상 CEO 전략'으로 규정했다. 미래의 CEO와 비즈니스 리더들을 위해 '역발상 CEO'들의 경영 전략을 철저히 분석해 도출한 '최강의 경영 모델'을 담았다.

FORUM

국내 최대 규모의 ICT 종합전시회
2023 월드IT쇼

일시 2023년 4월 19~21일
장소 서울 코엑스^{COEX}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2023 월드IT쇼^{WIS}'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Innovation for Tomorrow(미래를 위한 혁신)'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등 최근 급부상한 신기술 트렌드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미래 세상을 여는 기술의 가치'를 주제로 한 글로벌 ICT 전망 콘퍼런스와 글로벌 빅 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 구매 상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WEB

CEO를 위한 경영 정보 지식 총전소
CHIEF EXECUTIVE
www.chiefexe.com

최신 경영 트렌드 및 다양한 시사 상식을 제공하는 'CHIEF EXECUTIVE'는 국내 기업 CEO와 비즈니스맨을 주 타깃으로, 최고책임자^{Chief Executive}에게 필요한 정보와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내외 경제·경영 흐름 및 전망 등을 다루는 경영 정보 콘텐츠 플랫폼이다.

온라인과 모바일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서비스 형태에 따라 국내 주요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의 케이스스터디를 통한 생생한 기업 사례와 전략, 마케팅, 인사 등 국내외 경영 아티클을 받아볼 수 있다.

노무 컨설팅을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노무 분야의 주요 내용 및 컨설팅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고객 응대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거래 기업이 노무 관련 문의 시, IBK기업은행 소속 노무사의 맞춤형 컨설팅 안내 및 지원

노무 관련 주요 키워드

채용·퇴직

-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 영업비밀약정서
- 사직·해고

급여·휴가

- 시급제
- 최저·평균임금
- 시간외수당
- 연차휴가
- 통상·포괄임금

근태·보험

- 근로시간 단축
- 유연근로시간제도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기타

- 중대재해
- 산재 처리
- 외국인 직원
- 근로감독
- 비정규직(계약직·파견직 등)

최근 주요 이슈

근로시간제도 개편(입법 예고)

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근로 운영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감독과 지도를 하는 행정행위
(근로감독 공문을 통해 실시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위반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에게
징역, 벌금 등을 부과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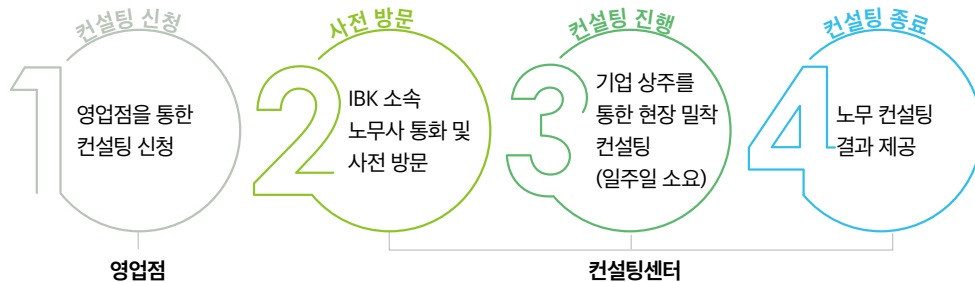
노무 컨설팅 안내

대상

노무 이슈로 인해
컨설팅이 필요한
고객

신규 창업 및 스타트업
(기초 노무관리 체계
수립), 임금 체계 개선
필요 사업장(포괄임금
수립·통상임금 검토),
장시간 근로 개선 필요
사업장,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등

진행 절차



컨설팅 주제 (예시)

① 급여 체계 검토 및 개선 방안 수립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임금 체계 검토 및 개선
② 근로시간 검토 및 개선	근로시간단축법에 따른 주요 이슈 검토 및 개선
③ 연차휴가 관련 교육 및 대응	연차휴가 계산, 정산 등 관련 교육 및 대응 방안 마련
④ 노무 관련 법정 문서 설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노동법상 필수 문서 설계
⑤ 법정 의무교육 체계 수립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 5대 교육 관련 시스템 구축
⑥ 기타	프리랜서 관련 이슈, 하도급 관련 이슈, 노사협의회 등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375호(2023.03.17) 유효기간(2024.03.16)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 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쉬운 경영은 없지만 쉬운 बैंकिंग은 있습니다



기업에 담긴 당신의 진심을 알기에
60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더 나은 기업금융의 길을 걸어갑니다

IBK기업뱅킹



고객별 맞춤으로 쉽게!
자산관리서비스, 알림 서비스 등
고객 유형별로 맞춰 편리한 이용



비대면으로 빠르게!
영업점 방문 없이도 대출, 외환 업무와
개인 및 법인 카드 발급까지 가능



자금통제로 안전하게!
다단계 결제, 다양하고 편리한 결제라인
야간/주말 이용시간을 안전하게 제어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651호(2023.02.13) [유효기간 : 2024.02.12]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IBK 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이 세상에 작은 기업은 없다

누군가는 기업에서

꿈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도 합니다.

기쁨이론 실패에 울고,

보란듯 웃으며 이겨내고

이 순간도 누군가는 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수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한다는 건 크고 막중한 일입니다

